산업화와 취업구조의 변동
-1984년과 1989년의
고용매트릭스에 대한분석

1992

한국노동연구원

目 次

Ⅰ. 머리말

Ⅱ. 産業化와 雇傭構造의 變化

1. 産業構造調整의 意義와 內容
2. 産業構造調整이 雇傭에 미치는 影響
3. 우리 나라의 産業化와 雇傭構造의 變動

Ⅲ. 勞動力 構成의 變化

1. 年齡別 就業構造의 變化
2. 學歷別 就業構造의 變化

Ⅳ. 勞動力 需要의 變化

1. 産業構造의 變動
2. 産業別 就業構造의 變化
3. 職業別 就業構造의 變化
4. 被雇傭者의 增大와 自營業者・家族從事者의 減少

Ⅴ. 맺음말

參考文獻

Ⅰ. 머 리 말

1987년의 격심한 노사분규를 겪은 후 최근 2～3년간은 노사문제가 곧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주제로 인식되어 왔다.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 선진산업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걸림돌로 고용안정 및 인력수급문제가 한국 경제의 새롭고도 중요한 과제로 다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사문제의 일시적 긴장완화라고 하는 외부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양면에 있어 그 구조와 시장행동이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경향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먼저 노동력 수요측면에서 발생한 변화로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력 흡수력의 상대적 감소와 취업구조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즉 8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여건변화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둔화 및 고용흡수력이 높은 건설업등에 있어 국내경기의 과열, 산업의 구조적 조정과정에서 이루어진 첨단산업의 대두와 새로운 업종의 출현 및 분화, 석탄산업과 같은 사양산업의 발생 등이 구조적 실업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인력의 과부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노동력의 공급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로서 고령화사회로의 이행, 노동력의 고학력화, 새로운 형태의 여성노동력의 증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의 인력수급 및 고용문제의 배후에는 경기순환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적 요인 및 사회구조적 요인이 동시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앞으로 인력정책의 국가적 장기전망 구상을 위하여 이러한 인력수급 및 고용정세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구조적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인력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980년대 들어와서 급속한 성장과 함께 많은 구조적 변화를 겪은 우리 나라 경제를 바탕으로 생산구조의 변화와 이것을 수반한 고용구조의 변화를 그 분석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통계청의 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1984～89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취업구조의 제반측면에서 발생한 여러 변화를 분석한다. 그 분석 결과는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제구조의 변동, 산업 및 생산구조의 변천에 발?추어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를 이해하는 데 근본적인 시사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우리 나라 경제에서 전개될 노동시장의 제반 행태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産業化와 雇傭構造의 變化

1. 産業構造調整의 意義와 內容

장기적으로 산업의 발전은 경제환경이나 구조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이 고도화되고 생산효율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 요소이동의 한계성, 높은 투자위험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 때문에 경제여건이 달라지더라도 산업구조나 생산체제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처럼 여건변화에 대한 적응이 늦어지면 성장이 둔화되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책적인 조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위적인 적응노력을 또한 산업구조조정이라 부른다.
산업구조조정의 요인이 되는 경제환경 및 구조변화의 유형은 크게 보아 수요의 변화, 상대가격의 변화, 기술여건의 변화 등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수요의 변화는 1차적으로 대량소비사회로의 이행이나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자 기호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방경제하에서는 당사국은 물론 교역상대국의 무역정책변화에 따른 대외수요 여건의 변화도 중요한 구조조정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상대가격의 변화는 생산물과 생산요소가격의 변동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산업구조조정의 요인으로서는 임금과 자본비용과의 상대가격 변화와 에너지가격의 변동에 따른 생산비의 변동 등이 중요시된다. 그 밖에 환율의 조정도 교역재의 상대가격을 변동시키고 생산비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구조조정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술여건의 변화는 생산가능곡선의 형태나 위치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발전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예로서는 과거의 증기・전력과 같은

새로운 동력의 개발, 근래의 전자통신기술 및 유전공학의 발전과 신소재의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기술발전이 날로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는 신기술을 얼마나 신속하게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관건이 되고 있으므로 기술여건의 변화야말로 산업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動因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수요・가격 및 기술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한 산업구조조정의 형태는 方向轉換的 調整, 技術革新的 調整, 效率增進的 調整 등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방향전환적 조정은 경제여건의 변화로 시장을 상실하였거나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의 업종전환,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및 그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 등이 포함되나 실제로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구조적인 불황업종을 정리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기 때문에 흔히 산업구조조정이라 할 때는 이러한 방향전환적인 조정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혁신적 조정은 새로운 산업기술의 개발과 신기술의 기업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신기술 개발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도입기술로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거나 자주적인 기술변형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수출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이러한 기술혁신적 조정의 범주에 속한다.
효율증진적 조정은 기존 업종의 정리를 위한 방향전환적 조정이나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의미하는 기술혁신적 조정과는 달리 기존의 생산체제를 유지하면서 생산요소의 투입구조를 변경하거나 업무의 다각화를 추진함으로써 생산효율을 제고하는 노력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예로는 전자・기계기술의 유합을 통한 생산공정의 자동화, 소비행태의 패션화에 대응한 多品種 少量生産體制의 확립을 지적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산업구조조정 문제가 처음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대량소비사회로의 이행에 부응한 생산체제의 조정,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구조적 불황산업의 정리라는 면에서 구조조정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戰後 1960년대까지는 세계적으로 장기호황기였기 때문에 주요국의 정책당국자들은 미시적인 구조조정정책보다는 거시총량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와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대내외적으로 경쟁이 격화된데다가 資源내셔널리즘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으로 산업성장여건도 크게 악화됨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과잉설비의 처분, 자원절약적인 생산체계의 확립 등 산업구조조정 문제가 긴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게 되었다.
이처럼 1970년대 이후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1차적으로는 저성장 경제로의 이행과 석유파동 등 경제여건 변화 때문이었지만 때맞추어 발생한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은 산업구조조정의 영역을 크게 확대함은 물론 산업구조조정을 단기적인 과제가 아닌 지속적인 과제로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1960년대 후반 컴퓨터가 등장한 이후 급속히 발전한 전자통신기술은 그와 관련한 하드웨어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분야를 창출함과 동시에 산업의 융합화, 생산공정 및 사무의 자동화를 가능케 하였다는 점에서 실로 획기적인 기술여건의 변화였으며 이러한 신기술을 어떻게 빨리 산업에 적용하느냐의 여부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관건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1970년대 중반부터 주요선진국들은 신기술의 기업화와 생산공정 및 사무의 자동화를 통한 생산효율의 제고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결과 불과 20년이 못되는 짧은 기간동안 미국, 일본 및 서유럽국가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정보통신산업이 GNP의 25% 내외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수치제어식(NC) 공작기계, 산업용 로보트 등 전자와 기계의 일체화 기술을 통한 생산공정의 자동화도 급속한 진전을 보였다.

2. 産業構造調整이 雇傭에 미치는 影響

앞에서 산업구조조정의 형태를 방향전환적 조정, 기술혁신적 조정, 효율증진적 조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생산거점의 해외이전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크게 보면 이들 세 가지 형태는 모두 기술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구조조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발전이 고용에 주는 효과는 가격효과, 새로운 산업의 창출효과, 노동대체효과 등 세 가지 경로가 있는데 고전학파는 노동대체로 인한 고용감소효과를 중시한 데 비하여 신고전학파는 제품가격의 하락과 새로운 산업의 창출에 따른 고용증대효과를 중시하였다. 또한 신고전학파는 신기술이 노동을 대체할 경우 임금이 하락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의 고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예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윌리암스(Williams, 1986) 같은 학자들은 장기적으로는 신고전학파의 견해가 타당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이나 새로운 산업의 창출에 따른 높은 조정비용 때문에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의 전자통신기술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날 전자・기계융합기술이라 불리는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로 대표되는 전자통신기술은 노동대체적인 기술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산업에 활용할 경우 고용감소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 밖에 경기상황, 산업의 성숙도, 산업조직 등도 고용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수요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기하강기에 메카트로닉스기술을 산업에 적용하거나 제품주기가 성숙되어 제품혁신의 가능성이 적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산업이나 독과점이 지배하는 산업에 메카트로닉스기술을 도입 할 경우 고용감소 효과가 커지게 된다.
그러나 전자통신기술은 정보통신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특히 메카트로닉스기술을 생산에 도입할 경우 생산의 다각화를 통한 수요창출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전자통신기술이 고용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는 이 기술이 제품혁신에 활용되느냐 아니면 공정혁신에 활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자통신기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의 활용방법이나 경제 및 산업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기술은 知的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산업의 서비스화와 직업의 서비스화를 야기시킴으로써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
전자통신기술이 고용의 서비스화를 가져오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컴퓨터, 수치제어, 산업용 로보트롤 활용한 생산 및 사무의 자동화는 단순작업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과 정보서비스업, 조사연구, 기술상담 등 창조적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제조업부문으로부터 서비스부문으로 고용을 이전시킨다. 그리고 생산공정을 자동화할 경우 제조업 내부에서도 생산현장 인력이 감소하는 대신 연구개발, 판매, 영업, 정보처리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인력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직종의 비율이 높아진다.
또한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향상률이 낮고 고용흡수력이 높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제조업부문에서 고용이 감소한 이상으로 서비스부문의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정보통신기술의 응용이라는 면에서 산업구조조정이 급속히 진전된 1970년대 이후 주요선진국의 고용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서독의 경우을 제외하고는 성장의 고용흡수력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구조면에서는 제조업의 고용이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대신 서비스부문의 고용이 증가하고 서비스직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우리 나라의 産業化와 雇傭構造의 變動

한 나라의 경제에서 수요되는 노동력의 質과 量은 산업구조와 기술방식 - 생산기술뿐만 아니라 관리기술도 포함 - 에 규정되는 직무내용을 주요요인으로 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를 수반한 기술의 변화는 곧 고용구조의 변화의 원인이 된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특정산업 또는 한 무리의 산업이 산업전체의 평균성장률을 초과함으로써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그 요인은 수요와 공급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수요측 요인으로는 경제발전에 의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그 결과 제반 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구성비가 변화된다는 점을 들수 있으며, 공급측 요인으로는 노동, 자본, 천연자원 등 생산요소의 부존과 기술수준이 어떤

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결합되어 낮은 비용의 생산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 나라의 '산업화' 는「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1960을 기준연도로 1962년을 제1차 연도로 하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공업화의 준비단계」로서의 전력・석탄 등 동력자원의 확보와 비료・시멘트 등 基幹産業의 확충을 최대의 목표로 본격적・계획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60년대에서 70대에 이어 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제6차 5개년계획에 걸쳐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고도성장과정에서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 즉 농촌인구의 분산에 따르는 인구의 도시화・산업화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크나큰 변화를 거듭하면서 특히 취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측면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격한 대량의 노동력이동을 야기하였다.
경제의 성장은 흔히 '산업화' 라는 말로 이해된다. 이 경우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주력부문인 공업의 내용이나 성격이 이 부문에 취업하는 노동력구성의 변화와 더불어 중시된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라서 부가가치 구성비로 나타내어지는 제2차산업의 비중은 급속하게 늘어나는 한편 공업부문의 노동력 구성비도 이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산업구조가 더욱 고도화됨에 따라 산업구조변화는 두 가지 흐름을 보이게 된다. 첫째는 제조업의 성장둔화와 함께 서비스산업은 빠른 성장을 보이게 된다. 둘째는 산업내에서의 구조고도화 경향이다. 이것은 기술혁신에 따른 정보화・소프트화의 경향으로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Micro-Electronics)와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등 첨단기술이 갖는 특성으로 산업전반에서 또한 생산공정에서 합리화와 함께 인력절감이 달성되게 한다.
1970년에서 1980년에 걸쳐 관찰해 보면, 식료품, 섬유, 의복 등 경공업의 비중이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철강, 기계, 전자, 운수장비, 화학 등의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결국 앞으로의 산업구조가 경제의 국제화・정보화・서비스화와 함께 우리의 산업이 기술집약산업 중심으로 이행되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게 한다.
80년대 중반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연이어 80년대 후반에 발생한 노사문제, 그결과 1989년과 1990년의 두 해에 걸친 노동시장의 불안정 현상은 경기순환적 요인을 통한 고용정세의 변환뿐만 아니라 위에서 지적한 경제구조적 요인, 장기추세적 요인을 바탕으로 한 노동력 수요에 있어서만 아니라 노동력 공급에 있어서도 시장변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노동력 수요면에서 생기는 주된 변화는 고용흡수력의 변화에 수반되는 노동력 수요의 상대적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별・부문별 노동력 수요구성의 변화를 들 수 있고, 노동력 공급측면에서의 주된 변화로는 연령별 인구 및 노동력의 급격한 변화, 노동력의 고학력화, 새로운 형태의 여성노동력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결국 두 가지 관점에서 노동력 수요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산업구조의 변화는 각 노동력집단에 대한 수요를 크게 변화시킨다. 둘째는 향후의 산업구조 변화는 과거의 공업화과정에서의 다수의 동질적인 인력을 공업내부로 흡수했던 것과는 달리 인력의 분화 및 전문화를 촉진할 것이다.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의 발전은 신기술 및 신기능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여 보다 세분화되고 특화된 기술 및 기능인력집단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있어 이와 같은 노동력 수급상의 변화는 시대적으로 나타난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는 과거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천과정의 검토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本稿에서는 그 가운데 80년대의 중반에서 후반에 걸친 5년간의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천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알아보기로 한다.

Ⅲ. 勞動力 構成의 變化

최근에 들어와 우리 나라 노동력공급의 변화 중 두드러진 경향으로 지적되게 된 것이 '高齡化', '高學歷化' 및 '女性勞動力의 增加'이다. 이 세 가지의 변화는 기본적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산업화의 진전에 따르는 사회적 구조변화의 일부이며 국제적 경향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결과로서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났다는 사실, 더구나 그것이 題示化된 것은 8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걸쳐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서 이른바 고도성장에 의한 산업화의 여파로서 포착되었다는 데에 이 세 가지 변화의 특징이 있다.

1. 年齡別 就業構造의 變化

가. 남자

1984년과 1989년의 남자의 연령별 취업구조를 비교한 것이 <표 Ⅲ-1>에서 <표 Ⅲ-11>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의하여 각 연령별로 경제활동 및 취업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15～19세의 연령층을 보자. 이 연령층에서 민간인구의 규모는 5년 사이에 202천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243천명의 취학인구 증가를 비롯한 비경제활동인구는 261천명이 증가하여 실제 경제활동에 참가한 인구는 59천명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곧 취업자수에 반영되어 같은 기간에 15～19세의 취업자의 감소는 41천명에 달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취학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남자 20～24세의 인구에서 거의 대부분의 군인이 충원되기 때문에 표에서 나타난 민간인구는 이것을 반영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적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20～24세의 민간인구는 5년 사이에 165천명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곧바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반영되어 133천명의 취업자 감소로 나타났다.

<표 Ⅲ-1> 14세 이상 인구

(단위: 천명, %)

		총 수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이상
전	1984	26,821	3,924	3,295	3,831	2,800	2,524	2,309	2,208	1,665	1,316	2,949
		(100.0)	(14.6)	(12.3)	(14.3)	(10.4)	(9.4)	(8.6)	(8.2)	(6.2)	(4.9)	(11.0)
	1989	30,225	4,437	3,053	4,056	3,774	2,761	2,587	2,323	2,179	1,612	3,443
		(100.0)	(14.7)	(10.1)	(13.4)	(12.5)	(9.1)	(8.6)	(7.7)	(7.2)	(5.3)	(11.4)
체	증감	3,404	513	-242	225	974	237	278	115	514	296	494
	(증감률)	(12.7)	(13.1)	(-7.3)	(5.9)	(34.8)	(9.4)	(12.0)	(5.2)	(30.9)	(22.5)	(16.8)
남	1984	12,908	2,126	1,374	1,882	1,401	1,288	1,176	1,103	785	592	1,181
		(100.0)	(16.5)	(10.6)	(14.6)	(10.9)	(10.0)	(9.1)	(8.5)	(6.1)	(4.6)	(9.1)
	1989	14,615	2,328	1,209	2,031	1,942	1,382	1,339	1,162	1,103	780	1,339
		(100.0)	(15.9)	(8.3)	(13.9)	(13.3)	(9.5)	(9.2)	(8.0)	(7.5)	(5.3)	(9.2)
자	증감	1,707	202	-165	149	541	94	163	59	318	188	158
	(증감률)	(13.2)	(9.5)	(-12.0)	(7.9)	(38.6)	(7.3)	(13.9)	(5.3)	(40.5)	(31.8)	(13.4)
여	1984	13,913	1,798	1,921	1,949	1,399	1,236	1,133	1,105	880	724	1,768
		(100.0)	(12.9)	(13.8)	(14.0)	(10.1)	(8.9)	(8.1)	(7.9)	(6.3)	(5.2)	(12.7)
	1989	15,610	2,109	1,844	2,025	1,832	1,379	1,248	1,161	1,076	832	2,104
		(100.0)	(13.5)	(11.8)	(13.0)	(11.7)	(8.8)	(8.0)	(7.4)	(6.9)	(5.3)	(13.5)
자	증감	1,697	311	-77	76	433	143	115	56	196	108	336
	(증감률)	(12.2)	(17.3)	(-4.0)	(3.9)	(31.0)	(11.6)	(10.2)	(5.1)	(22.3)	(14.9)	(19.0)
여성의 비율												
	1984	51.9	45.8	58.3	50.9	50.0	49.0	49.1	50.0	52.9	55.0	60.0
	1989	51.6	47.5	60.4	49.9	48.5	49.9	48.2	50.0	49.4	51.6	61.1

<표 Ⅲ-2>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

		총 수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이상
전	1984	14,970	729	1,898	2,360	1,940	1,873	1,757	1,659	1,145	786	823
		(100.0)	(4.9)	(12.7)	(15.8)	(13.0)	(12.5)	(11.7)	(11.1)	(7.6)	(5.3)	(5.5)
	1989	17,977	663	1,896	2,713	2,793	2,131	2,037	1,825	1,638	1,081	1,200
		(100.0)	(3.7)	(10.5)	(15.1)	(15.5)	(11.9)	(11.3)	(10.2)	(9.1)	(6.0)	(6.7)
체	증감	3,007	-66	-2	353	853	258	280	166	493	295	377
	(증감률)	(20.1)	(-9.1)	(-0.1)	(15.0)	(44.0)	(13.8)	(15.9)	(10.0)	(43.1)	(37.5)	(45.8)
남	1984	9,312	329	889	1,710	1,350	1,239	1,118	1,028	689	458	502
		(100.0)	(3.5)	(9.5)	(18.4)	(14.5)	(13.3)	(12.0)	(11.0)	(7.4)	(4.9)	(5.4)
	1989	10,716	270	724	1,842	1,885	1,341	1,276	1,088	988	643	659
		(100.0)	(2.5)	(6.8)	(17.2)	(17.6)	(12.5)	(11.9)	(10.2)	(9.2)	(6.0)	(6.1)
자	증감	1,404	-59	-165	132	535	102	158	60	299	185	157
	(증감률)	(15.1)	(-17.9)	(-18.6)	(7.7)	(39.6)	(8.2)	(14.1)	(5.8)	(3.4)	(40.4)	(31.3)
여	1984	5,658	400	1,009	650	590	634	639	631	456	328	321
		(100.0)	(7.1)	(17.8)	(11.5)	(10.4)	(11.2)	(11.3)	(11.2)	(8.1)	(5.8)	(5.7)
	1989	7,261	393	1,172	871	908	790	761	737	650	438	541
		(100.0)	(5.4)	(16.1)	(12.0)	(12.5)	(10.9)	(10.5)	(10.2)	(9.0)	(6.0)	(7.5)
자	증감	1,603	-7	163	221	318	156	122	106	194	110	220
	(증감률)	(28.3)	(-1.8)	(16.2)	(34.0)	(53.9)	(24.6)	(19.1)	(16.8)	(42.5)	(33.5)	(68.5)
여성의 비율												
	1984	37.8	54.9	53.2	27.5	30.4	33.8	36.4	38.0	39.8	41.7	39.0
	1989	40.4	59.3	61.8	32.1	32.5	37.1	37.4	40.4	39.7	40.5	45.1

<표 Ⅲ-3> 취업자

(단위: 천명, %)

		총 수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이상
전	1984	14,403	653	1,742	2,252	1,883	1,824	1,712	1,618	1,124	775	820
		(100.0)	(4.5)	(12.1)	(15.6)	(13.1)	(12.7)	(11.9)	(11.2)	(7.8)	(5.4)	(5.7)
	1989	17,517	611	1,774	2,605	2,736	2,099	2,005	1,802	1,619	1,069	1,197
		(100.0)	(3.5)	(10.1)	(14.9)	(15.6)	(12.0)	(11.4)	(10.3)	(9.2)	(6.1)	(6.8)
체	증감	3,114	-42	32	353	853	275	293	184	495	294	377
	(증감율)	(21.6)	(-6.4)	(1.8)	(15.7)	(45.3)	(15.1)	(17.1)	(11.4)	(44.0)	(37.9)	(46.0)
남	1984	8,869	290	789	1,610	1,297	1,196	1,079	991	670	448	499
		(100.0)	(3.3)	(8.9)	(18.2)	(14.6)	(13.5)	(12.2)	(11.2)	(7.6)	(5.1)	(5.6)
	1989	10,391	249	656	1,748	1,841	1,317	1,251	1,069	971	632	657
		(100.0)	(2.4)	(6.3)	(16.8)	(17.7)	(12.7)	(12.0)	(10.3)	(9.3)	(6.1)	(6.3)
자	증감	1,522	-41	-133	138	544	121	172	78	301	184	158
	(증감율)	(17.2)	(-14.1)	(-16.9)	(8.6)	(41.9)	(10.1)	(15.9)	(7.9)	(44.9)	(41.1)	(31.7)
여	1984	5,534	363	953	642	586	628	633	627	454	327	321
		(100.0)	(6.6)	(17.2)	(11.6)	(10.6)	(11.3)	(11.4)	(11.3)	(8.2)	(5.9)	(5.8)
	1989	7,126	362	1,118	857	895	782	754	733	648	437	540
		(100.0)	(5.1)	(15.7)	(12.0)	(12.6)	(11.0)	(10.6)	(10.3)	(9.1)	(6.1)	(7.6)
자	증감	1,592	-1	165	215	309	154	121	106	194	110	219
	(증감율)	(28.8)	(-0.3)	(17.3)	(33.5)	(52.7)	(24.5)	(19.1)	(16.9)	(42.7)	(33.6)	(68.2)
여성의 비율												
	1984	38.4	55.6	54.7	28.5	31.1	34.4	37.0	38.8	40.4	42.2	39.1
	1989	40.7	59.2	63.0	32.9	32.7	37.3	37.6	40.7	40.0	40.9	45.1

<표 Ⅲ-4> 실업자

(단위: 천명, %)

		총 수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이상
전	1984	567	76	156	108	57	49	45	41	21	11	3
		(100.0)	(13.4)	(27.5)	(19.0)	(10.1)	(8.6)	(7.9)	(7.2)	(3.7)	(1.9)	(0.5)
	1989	460	52	122	108	57	32	32	23	19	12	3
		(100.0)	(11.3)	(26.5)	(23.5)	(12.4)	(7.0)	(7.0)	(5.0)	(4.1)	(2.6)	(0.7)
체	증감	-107	-24	-34	0	0	-17	-13	-18	-2	1	0
	(증감률)	(-18.9)	(-31.6)	(-21.8)	(0.0)	(0.0)	(-34.7)	(-28.9)	(-43.9)	(-9.5)	(9.1)	(0.0)
남	1984	443	39	100	100	53	43	39	37	19	10	3
		(100.0)	(8.8)	(22.6)	(22.6)	(12.0)	(9.7)	(8.8)	(8.4)	(4.3)	(2.3)	(0.7)
	1989	325	21	68	94	44	24	25	19	17	11	2
		(100.0)	(6.5)	(20.9)	(28.9)	(13.5)	(7.4)	(7.7)	(5.8)	(5.2)	(3.4)	(0.6)
자	증감	-118	-18	-32	-6	-9	-19	-14	-18	-2	1	-1
	(증감률)	(-26.6)	(-46.2)	(-32.0)	(-6.0)	(-17.0)	(-44.2)	(-35.9)	(-48.6)	(-10.5)	(10.0)	(-35.3)
여	1984	124	37	56	8	4	6	6	4	2	1	0
		(100.0)	(29.8)	(45.2)	(6.5)	(3.2)	(4.8)	(4.8)	(3.2)	(1.6)	(0.8)	(0.0)
	1989	135	31	54	14	13	8	7	4	2	1	1
		(100.0)	(23.0)	(40.0)	(10.4)	(9.6)	(5.9)	(5.2)	(3.0)	(1.5)	(0.7)	(0.7)
자	증감	11	-6	-2	6	9	2	1	0	0	0	1
	(증감률)	(8.9)	(-16.2)	(-3.6)	(75.0)	(225.0)	(33.3)	(16.7)	(0.0)	(0.0)	(0.0)	(100.0)
여성의 비율												
	1984	21.9	48.7	35.9	7.4	7.0	12.2	13.3	9.8	9.5	9.1	0.0
	1989	29.3	59.6	44.3	13.0	22.8	25.0	21.9	17.4	10.5	8.3	33.3

<표 Ⅲ-5>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

		총 수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이상
전	1984	11,851	3,195	1,397	1,471	860	651	552	549	520	530	2,126
		(100.0)	(27.0)	(11.8)	(12.4)	(7.3)	(5.5)	(4.7)	(4.6)	(4.4)	(4.5)	(17.9)
	1989	12,248	3,774	1,157	1,343	981	630	550	498	541	531	2,243
		(100.0)	(30.8)	(9.4)	(11.0)	(8.0)	(5.1)	(4.5)	(4.1)	(4.4)	(4.3)	(18.3)
체	증감	397	579	-240	-128	121	-21	-2	-51	21	1	117
	(증감률)	(3.3)	(18.1)	(-17.2)	(-8.7)	(14.1)	(-3.2)	(-0.4)	(-9.3)	(4.0)	(0.2)	(5.5)
남	1984	3,596	1,797	485	172	51	49	58	75	96	134	679
		(100.0)	(50.0)	(13.5)	(4.8)	(1.4)	(1.4)	(1.6)	(2.1)	(2.7)	(3.7)	(18.9)
	1989	3,899	2,058	485	189	57	41	63	74	115	137	680
		(100.0)	(52.8)	(12.4)	(4.8)	(1.5)	(1.1)	(1.6)	(1.9)	(2.9)	(3.5)	(17.4)
자	증감	303	261	0	17	6	-8	5	-1	19	3	1
	(증감률)	(8.4)	(14.5)	(0.0)	(9.9)	(11.8)	(-16.3)	(8.6)	(-1.3)	(19.8)	(2.2)	(0.1)
여	1984	8,255	1,398	912	1,299	809	602	494	474	424	396	1,447
		(100.0)	(16.9)	(11.0)	(15.7)	(9.8)	(7.3)	(6.0)	(5.7)	(5.1)	(4.8)	(17.5)
	1989	8,349	1,716	672	1,154	924	589	487	424	426	394	1,563
		(100.0)	(20.6)	(8.0)	(13.8)	(11.1)	(7.1)	(5.8)	(5.1)	(5.1)	(4.7)	(18.7)
자	증감	94	318	-240	-145	115	-13	-7	-50	2	-2	116
	(증감률)	(1.1)	(22.7)	(-26.3)	(-11.2)	(14.2)	(-2.2)	(-1.4)	(-10.5)	(0.5)	(-0.5)	(8.0)
여성의 비율												
	1984	69.7	43.8	65.3	88.3	94.1	92.5	89.5	86.3	81.5	74.7	68.1
	1989	68.2	45.5	58.1	85.9	94.2	93.5	88.5	85.1	78.7	74.2	69.7

<표 Ⅲ-6> 가사

(단위: 천명, %)

		총 수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이상
전	1984	6,213	122	729	1,301	819	617	515	503	452	419	736
		(100.0)	(2.0)	(11.7)	(20.9)	(13.2)	(9.9)	(8.3)	(8.1)	(7.3)	(6.7)	(11.8)
	1989	5,972	73	437	1,140	925	593	498	437	457	423	989
		(100.0)	(1.2)	(7.3)	(19.1)	(15.5)	(9.9)	(8.3)	(7.3)	(7.7)	(7.1)	(16.6)
체	증감	-241	-49	-292	-161	106	-24	-17	-66	5	4	253
	(증감률)	(-3.9)	(-40.2)	(-40.1)	(-12.4)	(12.9)	(-3.9)	(-3.3)	(-13.1)	(1.1)	(1.0)	(34.4)
남	1984	410	35	41	29	20	22	29	36	47	55	96
		(100.0)	(8.5)	(10.0)	(7.1)	(4.9)	(5.4)	(7.1)	(8.8)	(11.5)	(13.4)	(23.4)
	1989	452	28	41	22	20	17	25	30	53	64	152
		(100.0)	(6.2)	(9.1)	(4.9)	(4.4)	(3.8)	(5.5)	(6.6)	(11.7)	(14.2)	(33.6)
자	증감	42	-7	0	-7	0	-5	-4	-6	6	9	56
	(증감률)	(10.2)	(-20.0)	(0.0)	(-24.1)	(0.0)	(-22.7)	(-13.8)	(-16.7)	(12.8)	(16.4)	(58.3)
여	1984	5,803	87	688	1,272	799	595	486	467	405	364	640
		(100.0)	(1.5)	(11.9)	(21.9)	(13.8)	(10.3)	(8.4)	(8.0)	(7.0)	(6.3)	(11.0)
	1989	5,520	45	396	1,118	905	576	473	407	404	359	837
		(100.0)	(0.8)	(7.2)	(20.3)	(16.4)	(10.4)	(8.6)	(7.4)	(7.3)	(6.5)	(15.2)
자	증감	-283	-42	-292	-154	106	-19	-13	-60	-1	-5	197
	(증감률)	(-4.9)	(-48.3)	(-42.4)	(-12.1)	(13.3)	(-3.2)	(-2.7)	(-12.8)	(-0.2)	(-1.4)	(30.8)
여성의 비율												
	1984	93.4	71.3	94.4	97.8	97.6	96.4	94.4	92.8	89.6	86.9	87.0
	1989	92.4	61.6	90.6	98.1	97.8	97.1	95.0	93.1	88.4	84.9	84.6

<표 Ⅲ-7> 통학

(단위: 천명, %)

		총 수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이상
전	1984	3,731	3,029	577	117	6	1	1	0	0	0	0
		(100.0)	(81.2)	(15.5)	(3.1)	(0.2)	(0.0)	(0.0)	(0.0)	(0.0)	(0.0)	(0.0)
	1989	4,369	3,616	613	128	9	2	1	0	0	0	0
		(100.0)	(82.8)	(14.0)	(2.9)	(0.2)	(0.0)	(0.0)	(0.0)	(0.0)	(0.0)	(0.0)
체	증감	638	587	36	11	3	1	0	0	0	0	0
	(증감률)	(17.1)	(19.4)	(6.2)	(9.4)	(50.0)	(100.0)	(0.0)	(0.0)	(0.0)	(0.0)	(0.0)
남	1984	2,208	1,727	372	102	5	1	1	0	0	0	0
		(100.0)	(78.2)	(16.8)	(4.6)	(0.2)	(0.0)	(0.0)	(0.0)	(0.0)	(0.0)	(0.0)
	1989	2,458	1,970	362	117	7	1	1	0	0	0	0
		(100.0)	(80.1)	(14.7)	(4.8)	(0.3)	(0.0)	(0.0)	(0.0)	(0.0)	(0.0)	(0.0)
자	증감	250	243	-10	15	2	0	0	0	0	0	0
	(증감률)	(11.3)	(14.1)	(-2.7)	(14.7)	(40.0)	(0.0)	(0.0)	(0.0)	(0.0)	(0.0)	(0.0)
여	1984	1,523	1,302	205	15	1	0	0	0	0	0	0
		(100.0)	(85.5)	(13.5)	(1.0)	(0.1)	(0.0)	(0.0)	(0.0)	(0.0)	(0.0)	(0.0)
	1989	1,911	1,646	251	11	2	1	0	0	0	0	0
		(100.0)	(86.1)	(13.1)	(0.6)	(0.1)	(0.1)	(0.0)	(0.0)	(0.0)	(0.0)	(0.0)
자	증감	388	344	46	-4	1	1	0	0	0	0	0
	(증감률)	(25.5)	(26.4)	(22.4)	(-26.7)	(100.0)	(100.0)	(0.0)	(0.0)	(0.0)	(0.0)	(0.0)
여성의 비율												
	1984	40.8	43.0	35.5	12.8	16.7	0.0	0.0	0.0	0.0	0.0	0.0
	1989	43.7	45.5	40.9	8.6	22.2	50.0	0.0	0.0	0.0	0.0	0.0

<표 Ⅲ-8> 연소 연료

(단위: 천명, %)

		총 수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이상
전	1984	1,416	1	0	0	0	0	0	0	19	65	1,331
		(100.0)	(0.1)	(0.0)	(0.0)	(0.0)	(0.0)	(0.0)	(0.0)	(1.3)	(4.6)	(94.0)
	1989	1,172	1	0	0	0	0	0	0	6	36	1,129
		(100.0)	(0.1)	(0.0)	(0.0)	(0.0)	(0.0)	(0.0)	(0.0)	(0.5)	(3.1)	(96.3)
체	증감	-244	0	0	0	0	0	0	0	-13	-29	-202
	(증감률)	(-17.2)	(0.0)	(0.0)	(0.0)	(0.0)	(0.0)	(0.0)	(0.0)	(-68.4)	(-44.6)	(-15.2)
남	1984	595	1	0	0	0	0	0	0	10	43	541
		(100.0)	(0.2)	(0.0)	(0.0)	(0.0)	(0.0)	(0.0)	(0.0)	(1.7)	(7.2)	(90.9)
	1989	477	1	0	0	0	0	0	0	3	22	451
		(100.0)	(0.2)	(0.0)	(0.0)	(0.0)	(0.0)	(0.0)	(0.0)	(0.6)	(4.6)	(94.5)
자	증감	-118	0	0	0	0	0	0	0	-7	-21	-90
	(증감률)	(-19.8)	(0.0)	(0.0)	(0.0)	(0.0)	(0.0)	(0.0)	(0.0)	(-70.0)	(-48.8)	(-16.6)
여	1984	821	0	0	0	0	0	0	0	9	22	790
		(100.0)	(0.0)	(0.0)	(0.0)	(0.0)	(0.0)	(0.0)	(0.0)	(1.1)	(2.7)	(96.2)
	1989	695	0	0	0	0	0	0	0	3	14	678
		(100.0)	(0.0)	(0.0)	(0.0)	(0.0)	(0.0)	(0.0)	(0.0)	(0.4)	(2.0)	(97.6)
자	증감	-126	0	0	0	0	0	0	0	-6	-8	-112
	(증감률)	(-15.3)	(0.0)	(0.0)	(0.0)	(0.0)	(0.0)	(0.0)	(0.0)	(-66.7)	(-36.4)	(-14.2)
여성의 비율												
	1984	58.0	0.0	0.0	0.0	0.0	0.0	0.0	0.0	47.4	33.8	59.4
	1989	59.3	0.0	0.0	0.0	0.0	0.0	0.0	0.0	50.0	38.9	60.1

<표 Ⅲ-9> 기타

(단위: 천명, %)

		총 수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이상
전체	1984	491	43	91	53	35	33	36	46	49	46	59
		(100.0)	(8.8)	(18.5)	(10.8)	(7.1)	(6.7)	(7.3)	(9.4)	(10.0)	(9.4)	(12.0)
	1989	735	84	107	75	47	35	51	61	78	72	125
		(100.0)	(11.4)	(14.6)	(10.2)	(6.4)	(4.8)	(6.9)	(8.3)	(10.6)	(9.8)	(17.0)
	증감	244	41	16	22	12	2	15	15	29	26	66
	(증감률)	(49.7)	(95.3)	(17.6)	(41.5)	(34.3)	(6.1)	(41.7)	(32.6)	(59.2)	(56.5)	(111.9)
남자	1984	383	34	72	41	26	26	28	39	39	36	42
		(100.0)	(8.9)	(18.8)	(10.7)	(6.8)	(6.8)	(7.3)	(10.2)	(10.2)	(9.4)	(11.0)
	1989	512	59	82	50	30	23	37	44	59	51	77
		(100.0)	(11.5)	(16.0)	(9.8)	(5.9)	(4.5)	(7.2)	(8.6)	(11.5)	(10.0)	(15.0)
	증감	129	25	10	9	4	-3	9	5	20	15	35
	(증감률)	(33.7)	(73.5)	(13.9)	(22.0)	(15.4)	(-11.5)	(32.1)	(12.8)	(51.3)	(41.7)	(83.3)
여자	1984	108	9	19	12	9	7	8	7	10	10	17
		(100.0)	(8.3)	(17.6)	(11.1)	(8.3)	(6.5)	(7.4)	(6.5)	(9.3)	(9.3)	(15.7)
	1989	223	25	25	25	17	12	14	17	19	21	48
		(100.0)	(11.2)	(11.2)	(11.2)	(7.6)	(5.4)	(6.3)	(7.6)	(8.5)	(9.4)	(21.5)
	증감	115	16	6	13	8	5	6	10	9	11	31
	(증감률)	(106.5)	(177.8)	(31.6)	(108.3)	(88.9)	(71.4)	(75.0)	(142.9)	(90.0)	(110.0)	(182.4)
여성의 비율												
	1984	22.0	20.9	20.9	22.6	25.7	21.2	22.2	15.2	20.4	21.7	28.8
	1989	30.3	29.8	23.4	33.3	36.2	34.3	27.5	27.9	24.4	29.2	38.4

<표 Ⅲ-10> 경제활동인구참가율

(단위: %)

		총 수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이상
전	1984	55.8	8.6	57.6	61.6	69.3	74.2	76.1	75.1	68.8	59.7	27.9
	1989	59.5	14.9	62.1	66.9	74.0	77.2	78.7	78.6	75.2	67.1	34.9
체	증감률	3.7	-3.6	4.5	5.3	4.7	3.0	2.6	3.4	6.4	7.3	6.9
남	1984	72.1	15.5	64.7	90.9	96.4	96.2	95.1	93.2	87.8	77.4	42.5
	1989	73.3	11.6	59.9	90.7	97.1	97.0	95.3	93.6	89.6	82.4	49.2
자	증감률	1.2	-3.9	-4.8	-0.2	0.7	0.8	0.2	0.4	1.8	5.1	6.7
여	1984	40.7	22.2	52.5	33.4	42.2	51.3	56.4	57.1	51.8	45.3	18.2
	1989	46.5	18.6	63.6	43.0	49.6	57.3	61.0	63.5	60.4	52.6	25.7
자	증감률	5.8	-3.6	11.0	9.7	7.4	6.0	4.6	6.4	8.6	7.3	7.6

<표 Ⅲ-11> 실업률

(단위: %)

		총 수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이상
전	1984	3.8	10.4	8.2	4.6	2.9	2.6	2.6	2.5	1.8	1.4	0.4
	1989	2.6	7.8	6.4	4.0	2.0	1.5	1.6	1.3	1.2	1.1	0.3
체	증감률	-1.2	-2.6	-1.8	-0.6	-0.9	-1.1	-1.0	-1.2	-0.7	-0.3	-0.1
남	1984	4.8	11.0	11.2	5.8	3.9	3.5	3.5	3.6	2.8	2.2	0.6
	1989	3.0	7.8	9.4	5.1	2.3	1.8	2.0	1.7	1.7	1.7	0.3
자	증감률	-1.7	-4.1	-1.9	-0.7	-1.6	-1.7	-1.5	-1.9	-1.0	-0.5	-0.3
여	1984	2.2	9.3	5.6	1.2	0.7	0.9	0.9	0.6	0.4	0.3	0.0
	1989	1.9	7.0	4.6	1.6	1.4	1.0	0.9	0.5	0.3	0.2	0.2
자	증감률	-0.3	-1.4	-0.9	0.4	0.8	0.1	-0.0	-0.1	-0.1	-0.1	0.2

취업자 감소의 원인으로서 이들 연령층(15～24세)에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요인은 취학인구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다. 즉 15～19세에서는 인구 202천명의 증가에 대하여 243천명이 증가하였고 20～24세에서는 인구가 165천명이 감소한 반면에 불과 10천명의 취학인구가 감소하였다는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도 각각 15.5%, 64.7%에서 11.6%, 59.9%로 3.9%포인트, 4.8%포인트씩 크게 감소하였다.

베이비붐세대의 시초인 25～29세 연령층은 1984년에는 전체남자 민간인구 가운데에서 1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것은 곧 경제활동인구로 반영되어 18.4%를 차지하였고, 따라서 취업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인 18.2%를 점유하였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989년의 30～34세가 된 이들 연령층은 여전히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1989년의 30～34세의 인구를 1984년의 같은 연령층과 단순히 비교하여 보면 이들 베이비붐세대의 출현이 우리 나라의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즉 1984년과 비교하여 1989년의 30～34세의 민간인구는 541천명이 증가하여 38.6%의 증가율을 보였고, 경제활동인구는 535천명이 증가한 39.6%의 증가율을 관찰할 수 있다. 그로 인한 취업자 증가는 1,297천명에서 544천명이 늘어난 1,841천명으로 41.9%의 상승률이 시현되었다. 이것은 순전히 인구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 이들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인구구조의 변모에 기인한 비슷한 결과를 우리는 1989년의 25～29세 인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84년보다 1989년에 더 늘어난 25～29세의 인구는 149천명으로 이것은 이들 연령층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1989년에 90.7%)로 인하여 곧 경제활동인구가 132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도 138천명이 증가되었다. 그 결과로 취업의 연령별 구조로 볼 때 25～34세의 인구가 1984년에는 전체남자 취업자 중에서 32.8%, 1989년에는 34.5%를 점유하여 남자 취업자 중에서 3명에 1명꼴이 이들 연령층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5～49세의 연령층은 그다지 두드러진 특징이 없이 인구구조의 변모에 의거한 전반적인 추세에 따른 증가를 보였다. 다만 특기할 만한 것은 이들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고른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원래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들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평균 95%를 전후한 수준—은 이들의 대부분이 세대주로 있으면서 한 집안의 생계를 맡은 기둥으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며 기대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큰 변화를 기대 할 수 없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0.2～0.8%포인트의 증가폭을 보임으로써 이것은 경기의 활황에 따른 유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각 연령층에서 있은 인구의 증가와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로 인하여 이들 연령층에서의 경제활동인구는 모두 320천명이 증가하였고, 이것은 결국 371천명의 취업자의 증가가 가능하게 하였다.
50세 이상의 인구는 1984～89년에 걸쳐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이것은 순전히 인구구조의 변모에 기인한 것으로 중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의미하고 있다.1984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19.8%였던 50세 이상 인구가 1989년에는 664천명의 증가하여 22.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경제활동참가율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하여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전체 남자에서 1984년의 17.7%에서 641천명이 증가하여 1989년에는 21.3%를 차지하였다. 특히 55～59세와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84년에 각각 77.4%, 42.5%이었던 것이 1989년에는 82.4%, 49.2%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 연령층의 실업률은 1984년에 각각 2.2%, 0.6%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볼 때 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이들 연령층의 인구가 경제활동에 참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참가하는 즉시 곧바로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인구의 증가는 경기의 활성화에 따른 실업률의 저하, 그리고 그에 기인한 노동력 수요의 증가로 인한 여파로 2차노동력의 성격인 고령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를 또한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경제활동참가를 안하는 인구가 대폭 감소한 것이다.

나. 여자

여자의 경우에도 상당부분이 남자의 경우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남자와의 현격한 차이는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여성들의 노동시장에로의 참가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분히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여성인구는 1,697천명이 증가하여 12.2%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취업자는 1,592천명이 증가하여 28.8%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볼 때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 및 공급측의 요인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15～19세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1984년에서 1989년 사이에 인구는 311천명이 증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비경제활동인구를 보면 경기의 활황에 따른 제반여건에 따라 집에서 家事를 돌보면서 쉬고 있던 여성이 대거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가사로 인한 비경활인구는 42천명이 감소하였지만 같은 기간에 취학인구는 344천명이 증가하였다. 때문에 이 두 변화를 합하여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7천명이 감소하였다. 이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이를 반영하여 1984년의 22.2%에서 1989년에는 3.6%포인트가 감소한 18.6%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1천명이 감소하여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결국 이들 연령층의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가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은 취학인구의 점증으로 점점 감소한다고 볼 때 이들 집단에 대한 수요자들 사이의 경쟁은 점점 가열되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20～24세의 여성인구는 같은 기간에 77천명이 감소하였으나, 경기의 활성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수요증가가 家事를 이유로 비경활인구로 빠져 있었던 인구를 대거 경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이를 상쇄하였다. 이들 연령층에서 취학인구 역시 46천명이 증가하였지만 가사를 돌보는 인구가 292천명이 감소함으로써 전체 비경활인구는 240천명이 감소하였고, 경활인구는 163천명이 증가하여 결국 165천명의 취업자의 증가를 가능케 하였다.

25～29세의 경우는 인구가 76천명 늘어난 것에 덧붙여 가사로 인한 비경활인구가 145천명이 감소하여 경활인구는 221천명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30～34세의 경우는 인구가 남자의 같은 연령층의 경우와 마찬가지 요인이 베이비붐세대의 등장으로 433천명이 증가하였지만 비경활인구는 106천명이 증가한 318천명이 됨으로써 각 연령층을 비교할 때 가장 큰 경활인구증가를 보였다. 취학적령기의 연소연령과 고령인구를 제외한 여성에서 유일하게 가사를 이유로 한 비경활인구가 증가한 연령층이 30～34세인데 이것 역시 인구구조의 변모에 기인한 30～34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5～49세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인구의 증가와 비경활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인구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경활인구가 증가하였다. 이들 연령층의 경활참가율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35～39세와 40～44세 그리고 45～49세는 1984년에 각각 51.3%, 56.4%, 57.1%의 참가율에서 1989년에는 57.3%, 61.0%, 63.5%로 증가하였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비교적 작은 폭의 증가를 보인 이들은 앞으로 5년후에 인구구조 변모로 인한 35～39세를 제외한 40～49세는 비슷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시장의 절대인력수요증가는 중고령 여성인력에도 그 여파가 미쳐서 50세 이상의 인구에서도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50～54세, 55～59세 및 60세 이상의 참가율은 1984년에 각각 51.8%, 45.3%, 18.2%에서 1989년에는 8.6%포인트, 7.3%포인트, 7.6%포인트씩 증가한 60.4%, 52.6%, 25.7%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인구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경활인구 및 취업자의 증가로 나타났는데, 1984년에는 여성 전체취업자 중에서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에서 1989년에는 22.8%로 증가한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의 전반적인 실업률은 연령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같은 기간동안에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것은 여성의 경우 취업의 가능성이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결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매우 낮고 또한 그다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노동시장에 대한 진출의 확대로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의 성별구조에서 여성의 비율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체 인구에서의 남녀비율보다 두드러지게 크게 증가한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연령층은 24～29세와 30～34세 그리고 60세 이상인데 전체 인구에서는 각각 2.1%포인트, -0.9%포인트, 1.2%포인트씩 여성의 비율이 증가한 데 비하여 경제활동인구에서는 8.7%포인트, 4.6%포인트, 6.1%포인트가 증가하였고 그 결과로 취업자에서는 8.3%포인트, 4.4%포인트, 6.0%포인트가 증가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전체인구에서의 남녀비율은 1984년에 51.7%, 1989년에 51.6%로 변화가 없는 데 반하여 경제활동인구는 1984년에 37.8%에서 1989년에는 2.6%포인트 증가한 40.4%이고 취업자에서는 38.5에서 40.7%로 2.2%포인트 증가함으로써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우리 나라의 경제 및 사회의 여러 여건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 學歷別 就業構造의 變化

노동력 구성의 고학력화는 70년대부터 미미하게나마 그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게 된 것은 80년대초의 교육개혁으로 인하여 그 결과 대졸자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80년대 중반 이후이다. 또한 학력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노동력의 고학력화를 미처 따라잡지 못한 산업구조의 未調整으로 인하여, 특히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싼 가격으로 수출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이 생산구조를 노동력공급의 새로운 변화—특히 고학력화에 따른 임금의 상승—에 아직 맞추지 못한 때문에 더욱 두드러진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 이전은, 오히려 학력수준의 고도화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 있어서 양질의 노동력으로 인한 공업화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인식으로 환영을 받았을지언정 문제시되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클라크 커(1973)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공업사회는 모든 국민의 일반 교육수준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노동력에 있어서의 훈련과

탄력성을 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에 따라 자연적인 호기심이 정규교육에 대한 요구를 높이며, 교육은 수직적인 사회이동의 주요 수단의 하나가 된다. 공업사회는 前工業社會의 교육시스템을 대폭적으로 변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또 공업사회의 필요조건인 고도의 기능 및 일반교육은 정치면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매스 커뮤티케이션의 기법은 일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나, 그리고 정치적 활동을 조건지우며 정치적 콘트롤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의 노동력의 고학력화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학력별 취업구조의 변화추이가 <표 Ⅲ-12>에서 <표 Ⅲ-16>에 나타나 있다. 두드러진 변화는 취업인구의 고학력화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취학률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1984년에는 40%가까이가 국졸 이하였는데 1989년에는 30.3%로 10%포인트가량 하락하였으며, 중졸은 21.4%에서 20.1%로 감소하였고, 반면에 고졸취업자는 29.6%에서 36.5%로, 대졸은 9.4%에서 13.1%로 증가하였다. 절대숫자에서도 국졸 이하 취업자는 근 40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는 데 반해 중졸 인구는 453천명의 낮은 증가폭을 보였고, 고졸 취업자는 2,121천명, 대졸은 937천명의 증가를 보였다. 이것은 1984년의 취학력별 취업구조 변화추이

<표 Ⅲ-12> 전산업

(단위: 천명, %)

		총 수					내 림 금					임 금				
		전체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전체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전체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전	1984	14,397	5,706	3,076	4,264	1,351	6,774	3,715	1,286	1,423	350	7,623	1,991	1,790	2,841	1,001
		(100.0)	(39.6)	(21.4)	(29.6)	(9.4)	(47.1)	(25.8)	(8.9)	(9.9)	(2.4)	(52.9)	(13.8)	(12.4)	(19.7)	(7.0)
	1989	17,515	5,303	3,529	6,385	2,288	7,161	3,322	1,426	1,883	530	10,354	1,991	2,103	4,502	1,758
		(100.0)	(30.3)	(20.1)	(36.5)	(13.1)	(40.9)	(19.0)	(8.1)	(10.8)	(3.0)	(59.1)	(11.4)	(12.0)	(25.7)	(10.0)
체	증감	3,118	-393	453	2,121	937	387	-393	140	460	180	2,731	0	313	1,661	757
	(증감율)	(21.7)	(-6.9)	(14.7)	(49.7)	(69.4)	(5.7)	(-10.6)	(10.9)	(32.3)	(51.4)	(35.8)	(0.0)	(17.5)	(58.5)	(75.6)
남	1984	8,871	2,735	1,977	3,034	1,124	3,801	1,666	770	1,070	295	5,070	1,070	1,207	1,964	829
		(100.0)	(30.8)	(22.3)	(34.2)	(12.7)	(42.8)	(18.8)	(8.7)	(12.1)	(3.3)	(57.2)	(12.1)	(13.6)	(22.1)	(9.3)
	1989	10,390	2,304	2,072	4,262	1,752	3,973	1,438	794	1,329	412	6,417	866	1,278	2,933	1,340
		(100.0)	(22.2)	(19.9)	(41.0)	(16.9)	(38.2)	(13.8)	(7.6)	(12.8)	(4.0)	(61.8)	(8.3)	(12.3)	(28.2)	(12.9)
자	증감	1,519	-432	95	1,228	628	172	-228	24	259	117	1,347	-204	71	969	511
	(증감률)	(17.1)	(-15.8)	(4.8)	(40.5)	(55.9)	(4.5)	(-13.7)	(3.1)	(24.2)	(39.7)	(26.6)	(-19.1)	(5.9)	(49.3)	(61.6)
여	1984	5,526	2,970	1,099	1,230	227	2,973	2,049	516	353	55	2,553	921	583	877	172
		(100.0)	(53.7)	(19.9)	(22.3)	(4.1)	(53.8)	(37.1)	(9.3)	(6.4)	(1.0)	(46.2)	(16.7)	(10.6)	(15.9)	(3.1)
	1989	7,125	3,009	1,457	2,123	536	3,188	1,884	632	554	118	3,937	1,125	825	1,569	418
		(100.0)	(42.2)	(20.4)	(29.8)	(7.5)	(44.7)	(26.4)	(8.9)	(7.8)	(1.7)	(55.3)	(15.8)	(11.6)	(22.0)	(5.9)
자	증감	1,599	39	358	893	309	215	-165	116	201	63	1,384	204	242	692	246
	(증감율)	(28.9)	(1.3)	(32.6)	(72.6)	(136.1)	(7.2)	(-8.1)	(22.5)	(56.9)	(114.5)	(54.2)	(22.1)	(41.5)	(78.9)	(143.0)
여성의 비율																
	1984	38.6	65.9	35.7	28.9	16.8	43.9	55.2	40.1	24.8	15.7	33.5	46.3	32.6	30.9	17.2
	1989	40.7	56.9	41.3	33.3	23.4	44.5	56.7	44.3	29.4	22.3	38.0	56.5	39.2	34.9	23.8
증감률		9.1	0.7	10.1	14.0	13.5	3.0	-5.0	8.1	10.7	11.9	13.4	10.2	11.5	15.4	14.0

<표 Ⅲ-13> 농림수산업

(단위: 천명, %)

		총수					비임금					임금				
		전체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전체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전체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전체	1984	3,884	2,937	540	381	36	3,429	2,594	465	341	29	455	343	75	40	7
		(100.0)	(75.4)	(13.9)	(9.8)	(0.9)	(88.1)	(66.6)	(11.9)	(8.8)	(0.7)	(11.9)	(8.8)	(1.9)	(1.0)	(0.2)
	1989	3,420	2,492	503	382	43	3,137	2,365	456	344	32	283	187	47	38	11
		(100.0)	(72.9)	(14.7)	(11.2)	(1.3)	(91.7)	(67.4)	(13.3)	(10.1)	(0.9)	(8.3)	(5.5)	(1.4)	(1.1)	(0.3)
세	증감	-474	-445	-37	1	7	-292	-289	-9	3	3	-182	-156	-28	-2	4
	(증감률)	(-12.2)	-15.2)	(-6.9)	(0.3)	(19.4)	(-8.5)	(-11.1)	(-1.9)	(0.9)	(10.3)	(-38.1)	(-45.5)	(-37.3)	(-5.0)	(57.1)
남자	1984	2,239	1,461	405	338	35	1,963	1,231	342	302	28	276	170	63	36	7
		(100.0)	(65.3)	(18.1)	(15.1)	(1.6)	(87.7)	(57.7)	(15.3)	(13.5)	(1.3)	(12.3)	(7.6)	(2.8)	(1.6)	(0.3)
	1989	1,875	1,163	347	325	40	1,724	1,093	310	292	29	151	70	37	33	11
		(100.0)	(62.0)	(18.5)	(17.3)	(2.1)	(91.9)	(58.3)	(16.5)	(15.6)	(1.5)	(8.1)	(3.7)	(2.0)	(1.8)	(0.6)
자	증감	-364	-298	-58	-13	5	-239	-198	-32	-10	1	-125	-100	-26	-3	4
	(증감률)	(-16.3)	-20.4)	(-14.3)	(-3.8)	(14.3)	(-12.2)	(-15.3)	(-9.4)	(-3.3)	(3.6)	(-45.3)	(-58.8)	(-41.3)	(-8.3)	(57.1)
여자	1984	1,655	1,476	135	43	1	1,466	1,303	123	39	1	189	173	12	4	0
		(100.0)	(89.2)	(8.2)	(2.6)	(0.1)	(88.6)	(78.7)	(7.4)	(2.4)	(0.1)	(11.4)	(10.5)	(0.7)	(0.2)	(0.0)
	1989	1,545	1,329	156	57	3	1,413	1,212	146	52	3	132	117	10	5	0
		(100.0)	(86.0)	(10.1)	(3.7)	(0.2)	(91.5)	(78.4)	(9.4)	(3.4)	(0.2)	(8.5)	(7.6)	(0.6)	(0.3)	(0.0)
자	증감	-110	-147	21	14	. 2	-53	-91	23	13	2	-57	-56	-2	1	0
	(증감률)	(-6.6)	-10.0)	(15.6)	(32.6)	(200.0)	(-3.6)	(-7.0)	(18.7)	(33.3)	(200.0)	(-30.2)	(-32.4)	(-16.7)	(25.0)	(0.0)
여성의 비율																
	1984	48.4	58.2	26.8	11.3	2.3	46.7	56.5	27.0	11.3	3.1	66.8	92.5	25.5	10.5	0.0
	1989	45.2	53.3	31.0	14.9	7.0	45.0	52.6	32.0	15.1	9.4	46.6	62.6	21.3	13.2	0.0
증감률		-3.2	-5.9	4.2	3.7	4.7	-1.7	-3.9	5.0	3.8	6.3	-20.1	-29.9	-4.3	2.6	0.0

<표 Ⅲ-14> 광공업

(단위: 천명, %)

		총수					비임금					임금				
		전체	극품	중품	고품	대품	전체	극품	중품	고품	대품	전체	극품	중품	고품	대품
전체	1984	3,492	931	1,051	1,213	297	496	147	137	162	50	2,996	784	914	1,051	247
		(100.0)	(26.7)	(30.1)	(34.7)	(8.5)	(14.2)	(4.2)	(3.9)	(4.6)	(1.4)	(85.8)	(22.5)	(26.2)	(30.1)	(7.1)
	1989	4,935	1,048	1,295	2,087	505	667	159	189	245	74	4,268	889	1,106	1,842	430
		(100.0)	(21.2)	(26.2)	(42.3)	(10.2)	(13.5)	(3.2)	(3.8)	(5.0)	(1.5)	(86.5)	(18.0)	(22.4)	(37.3)	(8.7)
증감	증감	1,443	117	244	874	208	171	12	52	83	24	1,272	105	192	791	184
	(증감률)	(41.3)	(12.6)	(23.2)	(72.1)	(70.0)	(34.5)	(8.2)	(38.0)	(51.2)	(48.0)	(42.5)	(13.4)	(21.0)	(75.3)	(74.5)
남자	1984	2,217	416	629	890	282	304	58	79	130	47	1,903	358	550	760	235
		(100.0)	(18.8)	(28.4)	(40.1)	(12.7)	(14.2)	(2.6)	(3.6)	(5.9)	(2.1)	(85.8)	(16.1)	(24.8)	(34.3)	(10.6)
	1989	2,868	361	671	1,390	446	406	59	100	180	67	2,462	302	571	1,210	379
		(100.0)	(12.6)	(23.4)	(48.5)	(15.6)	(14.2)	(2.1)	(3.5)	(6.3)	(2.3)	(85.8)	(10.5)	(19.9)	(42.2)	(13.2)
증감	증감	651	-55	42	500	164	92	1	21	50	20	559	-56	21	450	144
	(증감률)	(29.4)	(-13.2)	(6.7)	(56.2)	(58.2)	(29.3)	(1.7)	(26.6)	(38.5)	(42.6)	(29.4)	(-15.6)	(3.8)	(59.2)	(61.3)
여자	1984	1,275	515	422	323	15	192	89	58	32	3	1,083	426	364	291	12
		(100.0)	(40.4)	(33.1)	(25.3)	(1.2)	(14.3)	(7.0)	(4.5)	(2.5)	(0.2)	(85.7)	(33.4)	(28.5)	(22.8)	(0.9)
	1989	2,067	687	624	697	59	261	100	89	65	7	1,806	587	535	632	52
		(100.0)	(33.2)	(30.2)	(33.7)	(2.9)	(12.6)	(4.8)	(4.3)	(3.1)	(0.3)	(87.4)	(28.4)	(25.9)	(30.6)	(2.5)
증감	증감	792	172	202	374	44	69	11	31	33	4	713	161	171	341	40
	(증감률)	(62.1)	(33.4)	(47.9)	(115.8)	(293.3)	(43.4)	(12.4)	(53.4)	(103.1)	(133.3)	(65.2)	(37.8)	(47.0)	(117.2)	(333.3)
여성의 비율																
	1984	25.8	49.1	32.6	15.5	3.0	27.3	56.0	30.7	13.1	4.1	25.6	47.9	32.9	15.8	2.8
	1989	41.9	65.6	48.2	33.4	11.7	39.1	62.9	47.1	26.5	9.5	42.3	66.0	48.4	34.3	12.1
증감률		16.0	16.4	15.6	17.9	8.7	11.8	6.9	16.4	13.5	5.4	16.7	18.1	15.5	18.5	9.3

<표 Ⅲ-15> 제조업

(단위: 천명, %)

		총수					비임금					임금				
		전체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전체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전체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전체	1984	3,352	863	1,015	1,183	291	494	147	137	161	49	2,858	716	878	1,022	242
		(100.0)	(25.7)	(30.3)	(35.3)	(8.7)	(14.7)	(4.4)	(4.1)	(4.8)	(1.5)	(85.3)	(21.4)	(26.2)	(30.5)	(7.2)
	1989	4,841	1,009	1,271	2,060	500	663	159	188	243	73	4,178	850	1,083	1,818	427
		(100.0)	(20.8)	(26.3)	(42.6)	(10.3)	(13.7)	(3.3)	(3.9)	(5.0)	(1.5)	(86.3)	(17.6)	(22.4)	(37.6)	(8.8)
	증감	1,489	146	256	878	209	169	12	51	82	24	1,320	134	205	796	185
	(증감률)	(44.4)	(16.9)	(25.2)	(74.2)	(71.8)	(34.2)	(8.2)	(37.2)	(50.9)	(49.0)	(46.2)	(18.7)	(23.3)	(77.9)	(76.4)
남자	1984	2,080	351	593	860	276	312	58	79	129	46	1,768	293	514	731	230
		(100.0)	(16.9)	(28.5)	(41.3)	(13.3)	(15.0)	(2.8)	(3.8)	(6.2)	(2.2)	(85.0)	(14.1)	(24.7)	(35.1)	(11.1)
	1989	2,783	328	647	1,366	442	402	59	99	178	66	2,381	269	548	1,188	376
		(100.0)	(11.8)	(23.2)	(49.1)	(15.9)	(14.4)	(2.1)	(3.6)	(6.4)	(2.4)	(85.6)	(9.7)	(19.7)	(42.7)	(13.5)
	증감	703	-23	54	506	166	90	1	20	49	20	613	-24	34	457	146
	(증감률)	(33.8)	(-6.6)	(9.1)	(58.8)	(60.1)	(28.8)	(1.7)	(25.3)	(38.0)	(43.5)	(34.7)	(-8.2)	(6.6)	(62.5)	(63.5)
여자	1984	1,272	512	422	323	15	182	89	58	32	3	1,090	423	364	291	12
		(100.0)	(40.3)	(33.2)	(25.4)	(1.2)	(14.3)	(7.0)	(4.6)	(2.5)	(0.2)	(85.7)	(33.3)	(28.6)	(22.9)	(0.9)
	1989	2,058	681	624	695	58	261	100	89	65	7	1,797	581	535	630	51
		(100.0)	(33.1)	(30.3)	(33.8)	(2.8)	(12.7)	(4.9)	(4.3)	(3.2)	(0.3)	(87.3)	(28.2)	(26.0)	(30.6)	(2.5)
	증감	786	169	202	372	43	79	11	31	33	4	707	158	171	339	39
	(증감률)	(61.8)	(33.0)	(47.9)	(115.2)	(286.7)	(43.4)	(12.4)	(53.4)	(103.1)	(133.3)	(64.9)	(37.4)	(47.0)	(116.5)	(325.0)
여성의 비율																
	1984	38.3	59.7	41.6	27.3	5.2	36.8	60.5	42.3	19.9	6.1	38.1	59.0	41.4	28.5	5.0
	1989	42.5	67.5	49.1	33.7	11.6	39.4	62.9	47.3	26.7	9.6	43.0	68.4	49.4	34.7	11.9
증감률		16.2	16.7	15.9	18.0	8.6	11.9	6.9	16.5	13.6	5.5	16.9	18.6	15.8	18.6	9.1

<표 Ⅲ-16>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단위: 천명, %)

		총수					비임금					임금				
		전체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전체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임금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전	1984	1,765	313	272	648	532	325	80	89	96	60	1,440	233	183	552	472
		(100.0)	(17.7)	(15.4)	(36.7)	(30.1)	(18.4)	(4.5)	(5.0)	(5.4)	(3.4)	(81.6)	(13.2)	(10.4)	(31.3)	(26.7)
	1989	2,482	331	309	956	886	516	90	109	205	112	1,966	241	200	751	774
		(100.0)	(13.3)	(12.4)	(38.5)	(35.7)	(20.8)	(3.6)	(4.4)	(8.3)	(4.5)	(79.2)	(9.7)	(8.1)	(30.3)	(31.2)
체	증감	717	18	37	308	354	191	10	20	109	52	526	8	17	199	302
	(증감률)	(40.6)	(5.8)	(13.6)	(47.5)	(66.5)	(58.8)	(12.5)	(22.5)	(113.5)	(86.7)	(36.5)	(3.4)	(9.3)	(36.1)	(64.0)
남	1984	1,106	34	161	438	373	188	40	53	57	38	918	94	108	381	335
		(100.0)	(3.1)	(14.6)	(39.6)	(33.7)	(17.0)	(3.6)	(4.8)	(5.2)	(3.4)	(83.0)	(8.5)	(9.8)	(34.4)	(30.3)
	1989	1,455	25	172	606	552	268	39	54	117	58	1,187	86	118	489	494
		(100.0)	(1.6)	(11.8)	(41.6)	(37.9)	(18.4)	(2.7)	(3.7)	(8.0)	(4.0)	(81.6)	(5.9)	(8.1)	(33.6)	(34.0)
자	증감	349	-9	11	168	179	80	-1	1	60	20	269	-8	10	108	159
	(증감률)	(31.6)	(-1.7)	(6.8)	(38.4)	(48.0)	(42.6)	(-2.5)	(1.9)	(105.3)	(52.6)	(29.3)	(-8.5)	(9.3)	(28.3)	(47.5)
여	1984	659	179	111	210	159	137	40	36	39	22	522	139	75	171	137
		(100.0)	(27.2)	(16.8)	(31.9)	(24.1)	(20.8)	(6.1)	(5.5)	(5.9)	(3.3)	(79.2)	(21.1)	(11.4)	(25.9)	(20.8)
	1989	1,027	206	137	350	334	248	51	55	88	54	779	155	82	282	280
		(100.0)	(20.1)	(13.3)	(34.1)	(32.5)	(24.1)	(5.0)	(5.4)	(8.6)	(5.3)	(75.9)	(15.1)	(8.0)	(25.5)	(27.3)
자	증감	368	27	26	140	175	111	11	19	49	32	257	16	7	91	143
	(증감률)	(55.8)	(15.1)	(23.4)	(66.7)	(110.1)	(81.0)	(27.5)	(52.8)	(125.6)	(145.5)	(49.2)	(11.5)	(9.3)	(53.2)	(104.4)
여성의 비율																
	1984	26.6	54.1	35.9	22.0	17.9	26.6	44.4	33.0	19.0	19.6	25.6	57.7	37.5	22.8	17.7
	1989	41.4	62.2	44.3	36.6	37.7	48.1	56.7	50.5	42.9	48.2	39.6	64.3	41.0	34.9	36.2
증감률		14.8	8.1	8.4	14.6	19.8	21.5	12.2	17.4	23.9	28.6	13.1	6.6	3.5	12.1	18.5

업인구에 비하여 국졸 이하는 6.9% 감소한 것이고 중졸, 고졸 및 대졸에서는 각각 14.7%, 49.7%, 69.4%씩 증가한 것이 되어, 고학력자일수록 그 증가율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자 국졸 이하의 감소폭은 특히 커서 432천명이 줄었고 반면에 여자는 39천명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활발해지면서 국졸 이하의 여성이 대폭 진출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졸 이상의 학력에서는 남녀 모두 고학력자일수록 그 증가폭이 컸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 중졸의 학력자는 미미한 증가로 인하여 전체 남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4년의 22.3%에서 19.9%로 감소하였고, 고졸은 34.2%에서 41.0%로, 대졸은 12.7%에서 16.9%로 증가하여 취업자의 고학력화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여자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되어 중졸 이하의 취업자비중은 줄었거나 거의 변화가 없는 데 반하여 고졸자는 22.3%에서 29.8%로, 대졸자는 4.1%에서 7.5%로 증가하였다.
특히 같은 기간에 여성의 진출은 고학력일수록 두드러지게 활발하여 여성의 비율이 고학력일수록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남자 중졸자는 95천명이 증가하였는데 여자는 358천명이 증가하여

여성이 중졸학력의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1%에서 41.3%로 증가하였고, 고졸 남자는 1,228천명이 증가한 데 비하여 여자는 893천명이 증가하여 여자의 비율이 19.3%에서 33.2%로 늘어났으며, 대졸 남자는 628천명이 증가하였는데 여자 대졸취업자는 309천명이 증가하여 여자의 비율이 전체 대졸취업자의 9.9%에서 23.4%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즉 1984년에는 전체 대졸취업자의 10명 중 1명꼴이 여자이었던 것이 1989년에는 4명 중 1명꼴이 된 셈이다.
80년대초의 교육개혁의 결과로 인하여 대졸자가 급증한 것 때문에 대졸자의 취업자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졸자의 공급이 증가한 것만큼 취업률의 증가가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대졸자의 취업난이 심하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학력별 실업률의 변동에서 알 수 있다. <표 Ⅲ-17>은 1984년과 1989년의 학력별 실업률을 나타낸 것이다.

<표 Ⅲ-17> 학력별 실업률 추이

(단위: %)

	연도	총수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전체	1984	3.8	1.7	4.0	5.7	5.7
	1989	2.5	0.7	1.9	3.3	4.9
남자	1984	4.8	2.8	5.2	6.0	5.3
	1989	3.0	1.2	2.4	3.6	4.6
여자	1984	2.1	0.6	1.8	5.1	7.3
	1989	1.6	0.3	1.2	2.7	5.8

남자의 경우 1984년의 학력별 실업률은 고졸자가 가장 높았으나 1989년에는 대졸자가 고졸자를 상회하게 되었다. 1984년의 학력별 실업률의 경우를 보면 남자 고졸자는 6.0%, 대졸자는 5.3%였다. 그러나 1989년에는 고졸자는 3.6%이나 대졸자는 4.6%로 반전되어 전체 남자실업률 3.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실업률은 1984년에는 전체 남자실업률 4.8%를 상회하였으나 1989년에는 고학력화로 인한 중졸자 취업비중의 감소로 인하여 중졸자의 수요가 많아진 것을 반영하여 2.4%로 대폭 하락하였고, 국졸자도 비슷한 원인으로 1.2%의 실업률을 보였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를 보면 여전히 대졸자의 실업률이 다른 학력에 비하여 가장 높으며, 또한 고학력일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학력 여성일수록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만 아직 사회의 고용현황은 고학력 여성에 대한 대우가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 고학력 여성에 대한 기피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 결과 1984년의 여성의 학력별 실업률을 보면 국졸 및 중졸은 여성 전체의 평균 실업률보다 낮은 0.6%, 1.8%를 각각 기록하였지만 고졸자는 5.1%, 대졸자는 7.3%를 기록하였다. 1989년에도 그와 비슷한 학력별 실업률의 양상을 보였지만 1984년에 비하여 볼 때 1989년의 두드러진 변화는 고졸실업률이 대폭 하락하여 2.7%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 대졸자는 아직 5.8%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Ⅳ. 勞動力 需要의 變化

1. 産業構造의 變動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것을 만들어 파는 기업은 성장하여 매출이 늘고 이익도 많아지게 된다. 임금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모여들게 된다. 반대로 시대의 요청에 적응할 수 없게 된, 즉 사람들의 요구가 줄어드는 산업부문의 매출은 늘지 않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도 줄어들게 된다. 이것이 산업구조 변천의 근본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비중은 1차산업으로부터 2차산업, 3차산업으로 옮아간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암 페티(Williams, B., 1623～87)이다. 그의 생각은 제1차산업보다는 제2차산업 쪽이 이익이 많고, 제2차산업보다는 제3차산업 쪽이 많은 돈을 번다. 그러므로 벌이가 많은 산업으로 사람들이 이동하고, 그 결과로 산업구조가 바뀌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페티의 생각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 영국의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1905～?)이다. 그는 산업을 3개로 분류하고, 경제의 발전과 함께 산업간의 소득격차가 원인으로 되어 제1차산업(농림업, 수산업)에서 제2차산업(광업, 제조업, 건설업)으로, 다시 제3차산업(도소매업, 금융업, 운수업, 그 밖의 서비스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영국이나 미국 등 10여개 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밝혔다. 그리고 이 산업구조 변화의 최초의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페티의 法則」이라고 명명하였다. 그의 저서 『經濟進步의 條件들』(1940)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득수준의 상승과 함께 제1차산업의 노동인구의 비중은 낮아지고 제2차산업과 제3차산업의 노동인구의 비중은 상승한다. 뿐만 아니라 제2차산업보다도 제3차산업 쪽이 급속하게 확대되는데, 제2차산업의 비중은 어떤 점까지 이르면 그 뒤에는 도리어 감소한다."

콜린 클라크가 지적한 경험법칙은 우리 나라 경제에도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

<표 Ⅳ-1> 산업별 국민총생산

(단위 : 1985년 불변가격, 10억원, %)

	전산업	농 림 수산업	광공업		
				광 업	제조업
1984	75,606	9,977	23,663	762	22,901
	(100.0)	(13.2)	(31.3)	(1.0)	(30.3)
1989	120,429	10,825	41,306	784	40,522
	(100.0)	(9.0)	(33.9)	(0.7)	(33.6)
성장률	59.3	8.5	74.6	2.9	76.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전기	건설업	도소매	운수	금융	서비스
1984	41,966	1,998	5,987	9,084	5,872	8,211	10,814
	(55.5)	(2.6)	(7.9)	(12.0)	(7.8)	(10.9)	(14.3)
1989	68,298	3,858	9,343	15,114	9,368	16,036	14,579
	(56.7)	(3.2)	(7.8)	(12.6)	(7.8)	(13.3)	(12.1)
성장률	62.7	93.1	56.1	66.4	59.5	95.3	34.8

주: 괄호안은 구성비

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984년과 1989년의 기간에 발생하였던 생산규모 및 구조의 변화추이를 <표 Ⅳ-1>에 의하여 살펴보자.
국내총생산 규모로 따져볼 때 1984년에는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은 13.2%, 광공업부문은 31.3%였고 이 중 제조업은 30.3%를 차지하였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부문은 55.5%를 점유하였는데 이 중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2.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10.9%였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14.3%를 차지하였다.

그로부터 5년후인 1989년에는 전체 국내총생산에서는 1984년에 비하여 59.3%의 성장폭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인 것은 농림어업부문으로서 8.5% 성장하였는데, 1984년에는 13.2%를 차지하였던 생산비중이 1989년에는 9.0%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서 생산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것은 이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낮은 소득탄력성에 기인한 것이다.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부문은 광업으로서 생산에서 2.9%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 나라 석탄산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취한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등에 의한 정책적인 방침에 의한 것이다.
앞에서 열거한 이들 두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문의 생산은 35～95%의 범위에 이르는 다양한 성장률을 보였다. 그 중 특히 제조업의 생산은 76.9%의 성장을 하였고, 가장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인 것은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서의 생산으로 95.3%나 증가함으로써 배에 가까운 규모가 되었다. 그 결과 제조업의 비중은 33.6%로,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13.3%로 신장되었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도 93.1%의 증가율을 보여 생산비중이 2.6%에서 3.2%로 커졌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도 66.4%나 성장하여 12.0%에서 12.6%로 생산비중이 신장되었다.
이와 같이 성장한 우리 나라의 산업을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위해서도 클라크의 산업분류에 맞추어 1, 2, 3차산업으로 구분하여 그 비중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2차산업에는 광공업과 건설업이 포함되며, 제3차산업에서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포함된다.

<표 Ⅳ-2> 생산구조의 변화

(국내총생산의 구성비, 단위: %)

	연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한국	1984	13.2	39.2	47.6
	1989	9.0	42.1	48.9
일본	1960	14.9	36.3	48.8
	1970	6.1	41.8	52.1
	1980	3.7	39.2	57.1

<표 Ⅳ-2>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1984～89년의 기간에 제1차산업의 생산비중은 대폭 감소한 데 반하여 제2～제3차산업의 비중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제2차산업의 비중은 2.9%포인트 증가하였고, 제3차산업은 1.3%포인트 증가하여 제2차산업의 성장이 매우 빨랐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은 제2차산업으로부터 제3차산업으로의 구조변화를 생산의 측면에서 확실하게 엿볼 수 있다. 1970년을 정점으로 하여 그때까지는 제2차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로는 제2차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하여 제3차산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 産業別 就業構造의 變化

1984년과 1989년 사이의 산업별 인력수요의 구조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인력수요란 생산으로부터의 파생수요(derived demand)라는 것을 감안할 때 먼저 산업별 생산구조의 변동을 알아보자. 산업별 국민총생산의 변동추이가 <표 Ⅳ-1>에 나타나 있으며 각 산업의 총인력수요가 <표 Ⅳ-3>에서 <표 Ⅳ-7>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표에 의하여 살펴보면, 1984년과 1989년의 기간동안에 농림어업부문의 총생산은 8.5%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1984년보다 12.2%가 감소한 인력으로 이루어졌고, 제조업부문에서는 44.9%의 인력투입의 증가만으로 생산에서는 76.9%의 성장이 달성되었다. 이처럼 거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의 증가율보다 훨씬 낮은 인력투입의

증가율로 생산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생산기술의 발전에 기본적으로 의존한다고 간주된다. 즉 자본과 결합한 노동생산성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일하게 인력투입의 증가율이 생산의 증가율을 앞선 부문은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 분야인데, 이 부문은 근본적으로 노동집중도가 매우 높은 부문이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반영한다. 또한 각 산업의 성장속도가 다르고 각 산업의 노동생산성의 상승률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 취업구조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며, 이것을 우리는 <표 Ⅳ-4>에서 <표 Ⅳ-7>에 걸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1984년에는 전체 취업자의 27.1%가 농림어업부문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 1989년에는 20%가 안 되는 19.5%를 점유하게 되었다. 반면에 뚜렷한 증가율을 보인 부문은 제조업으로서 23.2%에서 1989년에는 4.4%포인트가 증가한 27.6%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제조업부문 생산의 급격한 성장을 반영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에서의 빠른 생산의 증가를 반영하여 이 부문에 취업한 인력 또한 3.5%에서 4.9%로 증가하였다.
그러면 이제부터 각 산업별로 연령별 취업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가. 농림어업부문

농림어업부문에서는 남녀 모두 50세 미만 연령층의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50세 이상의 인구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것은 농촌으로부터의 이농현상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농인구는 특히 생산에서 가장 활발히 기간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젊은 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50～59세 연령층에서의 취업인구의 절대적인 숫자에 있어서의 증가는 남녀 모두 자연적인 인구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1984년의 45～54세의 취업자수와 1989년의 50～59세의 그것을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농림어업의 취업자는 큰 증가폭을 보였는데 이것은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인하여 이들 연령층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것을 반영한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및 취업자의 증가가 377천명이었는데 그 중의 농림어업부문의 취업자의 증가가 195천명으로 51.7%를 차지하는 것에서 이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로 인한 결과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5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전체 취업자 중에서 남자는 1984년의 36.3%에서 1989년에는 52.7%로 여자는 39.6%에서 53.5%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표 Ⅳ-3> 전산업

(단위: 천명, %)

		총 수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이상
전	1984	14,388	651	1,742	2,251	1,877	1,823	1,713	1,611	1,124	776	820
		(100.0)	(4.5)	(12.1)	(15.6)	(13.0)	(12.7)	(11.9)	(11.2)	(7.8)	(5.4)	(5.7)
	1989	17,521	609	1,773	2,608	2,735	2,101	2,002	1,804	1,621	1,071	1,197
		(100.0)	(3.5)	(10.1)	(14.9)	(15.6)	(12.0)	(11.4)	(10.3)	(9.3)	(6.1)	(6.8)
체	증감	3,133	-42	31	357	858	278	289	193	497	295	377
	(증감률)	(21.8)	(-6.5)	(1.8)	(15.9)	(45.7)	(15.2)	(16.9)	(12.0)	(44.2)	(38.0)	(46.0)
남	1984	8,867	289	789	1,610	1,297	1,195	1,079	990	670	449	499
		(100.0)	(3.3)	(8.9)	(18.2)	(14.6)	(13.5)	(12.2)	(11.2)	(7.6)	(5.1)	(5.6)
	1989	10,396	248	657	1,750	1,840	1,318	1,248	1,071	972	634	658
		(100.0)	(2.4)	(6.3)	(16.8)	(17.7)	(12.7)	(12.0)	(10.3)	(9.3)	(6.1)	(6.3)
자	증감	1,529	-41	-132	140	543	123	169	81	302	185	159
	(증감률)	(17.2)	(-14.2)	(-16.7)	(8.7)	(41.9)	(10.3)	(15.7)	(8.2)	(45.1)	(41.2)	(31.9)
여	1984	5,521	362	953	641	580	628	634	621	454	327	321
		(100.0)	(6.6)	(17.3)	(11.6)	(10.5)	(11.4)	(11.5)	(11.2)	(8.2)	(5.9)	(5.8)
	1989	7,125	361	1,116	858	895	783	754	733	649	437	539
		(100.0)	(5.1)	(15.7)	(12.0)	(12.6)	(11.0)	(10.6)	(10.3)	(9.1)	(6.1)	(7.6)
자	증감	1,604	-1	163	217	315	155	120	112	195	110	218
	(증감률)	(29.1)	(-0.3)	(17.1)	(33.9)	(54.3)	(24.7)	(18.9)	(18.0)	(43.0)	(33.6)	(67.9)
여성의 비율												
	1984	31.5	59.4	53.8	24.6	21.2	29.9	31.7	34.4	28.0	30.5	26.8
	1989	40.7	59.3	62.9	32.9	32.7	37.3	37.7	40.6	40.0	40.8	45.0
	증감률	9.2	-0.2	9.2	8.3	11.5	7.4	6.0	6.2	12.0	10.3	18.2

<표 Ⅳ-4> 농림수산업

(단위: 천명, %)

		총 수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이상
전	1984	3,896	85	230	334	323	377	481	598	502	409	557
		(100.0)	(2.2)	(5.9)	(8.6)	(8.3)	(9.7)	(12.3)	(15.3)	(12.9)	(10.5)	(14.3)
	1989	3,422	27	85	177	271	284	327	435	586	478	752
		(100.0)	(0.8)	(2.5)	(5.2)	(7.9)	(8.3)	(9.6)	(12.7)	(17.1)	(14.0)	(22.0)
체	증감	-474	-58	-145	-157	-52	-93	-154	-163	84	69	195
	(증감률)	(-12.2)	(-68.2)	(-63.0)	(-47.0)	(-16.1)	(-24.7)	(-32.0)	(-27.3)	(16.7)	(16.9)	(35.0)
남	1984	2,237	72	177	225	180	202	254	315	260	215	337
		(100.0)	(3.2)	(7.9)	(10.1)	(8.0)	(9.0)	(11.4)	(14.1)	(11.6)	(9.6)	(15.1)
	1989	1,878	22	66	112	154	150	180	205	313	255	421
		(100.0)	(1.2)	(3.5)	(6.0)	(8.2)	(8.0)	(9.6)	(10.9)	(16.7)	(13.6)	(22.4)
자	증감	-359	-50	-111	-113	-26	-52	-74	-110	53	40	84
	(증감률)	(-16.0)	(-69.4)	(-62.7)	(-50.2)	(-14.4)	(-25.7)	(-29.1)	(-34.9)	(20.4)	(18.6)	(24.9)
여	1984	1,659	13	53	109	143	175	227	283	242	194	220
		(100.0)	(0.8)	(3.2)	(6.6)	(8.6)	(10.5)	(13.7)	(17.1)	(14.6)	(11.7)	(13.3)
	1989	1,544	5	19	65	117	134	147	230	273	223	331
		(100.0)	(0.3)	(1.2)	(4.2)	(7.6)	(8.7)	(9.5)	(14.9)	(17.7)	(14.4)	(21.4)
자	증감	-115	-8	-34	-44	-26	-41	-80	-53	31	29	111
	(증감률)	(-6.9)	(-61.5)	(-64.2)	(-40.4)	(-18.2)	(-23.4)	(-35.2)	(-18.7)	(12.8)	(14.9)	(50.5)
여성의 비율												
	1984	48.5	48.1	62.4	61.6	52.8	61.6	69.4	65.1	41.3	40.6	29.3
	1989	45.1	18.5	22.4	36.7	43.2	47.2	45.0	52.9	46.6	46.7	44.0
증감률		-3.4	-29.6	-40.0	-24.9	-9.6	-14.4	-24.5	-12.2	5.3	6.1	14.8

<표 Ⅳ-5> 광공업

(단위: 천명, %)

		총 수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이상
전	1984	3,485	359	691	719	508	414	324	231	120	72	47
		(100.0)	(10.3)	(19.8)	(20.6)	(14.6)	(11.9)	(9.3)	(6.6)	(3.4)	(2.1)	(1.3)
	1989	4,935	317	766	1,031	885	583	492	365	266	126	104
		(100.0)	(6.4)	(15.5)	(20.9)	(17.9)	(11.8)	(10.0)	(7.4)	(5.4)	(2.6)	(2.1)
체	증감	1,450	-42	75	312	377	169	168	134	146	54	57
	(증감률)	(41.6)	(-11.7)	(10.9)	(43.4)	(74.2)	(40.8)	(51.9)	(58.0)	(121.7)	(75.0)	(121.3)
남	1984	2,218	135	314	570	386	302	220	148	77	40	26
		(100.0)	(6.1)	(14.2)	(25.7)	(17.4)	(13.6)	(9.9)	(6.7)	(3.5)	(1.8)	(1.2)
	1989	2,866	139	307	730	580	355	293	213	150	65	34
		(100.0)	(4.8)	(10.7)	(25.5)	(20.2)	(12.4)	(10.2)	(7.4)	(5.2)	(2.3)	(1.2)
자	증감	648	4	-7	160	194	53	73	65	73	25	8
	(증감률)	(29.2)	(3.0)	(-2.2)	(28.1)	(50.3)	(17.5)	(33.2)	(43.9)	(94.8)	(62.5)	(30.8)
여	1984	1,267	224	377	149	122	112	104	83	43	32	21
		(100.0)	(17.7)	(29.8)	(11.8)	(9.6)	(8.8)	(8.2)	(6.6)	(3.4)	(2.5)	(1.7)
	1989	2,069	178	459	301	305	228	199	152	116	61	70
		(100.0)	(8.6)	(22.2)	(14.5)	(14.7)	(11.0)	(9.6)	(7.3)	(5.6)	(2.9)	(3.4)
자	증감	802	-46	82	152	183	116	95	69	73	29	49
	(증감률)	(63.3)	(-20.5)	(21.8)	(102.0)	(150.0)	(103.6)	(91.3)	(83.1)	(169.8)	(90.6)	(233.3)
여성의 비율												
	1984	25.7	70.7	49.2	14.5	13.8	19.2	21.1	22.7	16.2	25.4	20.2
	1989	41.9	56.2	59.9	29.2	34.5	39.1	40.4	41.6	43.6	48.4	67.3
	증감률	16.3	-14.5	10.7	14.7	20.7	19.9	19.3	18.9	27.4	23.0	47.1

<표 Ⅳ-6> 제조업

(단위: 천명, %)

		총 수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이상
전	1984	3,344	357	677	691	482	390	301	215	114	71	46
		(100.0)	(10.7)	(20.2)	(20.7)	(14.4)	(11.7)	(9.0)	(6.4)	(3.4)	(2.1)	(1.4)
	1989	4,844	317	762	1,018	868	570	480	351	253	122	103
		(100.0)	(6.5)	(15.7)	(21.0)	(17.9)	(11.8)	(9.9)	(7.2)	(5.2)	(2.5)	(2.1)
체	증감	1,500	-40	85	327	386	180	179	136	139	51	57
	(증감률)	(44.9)	(-11.2)	(12.6)	(47.3)	(80.1)	(46.2)	(59.5)	(63.3)	(121.9)	(71.8)	(123.9)
남	1984	2,079	133	300	542	360	279	198	132	71	39	25
		(100.0)	(6.4)	(14.4)	(26.1)	(17.3)	(13.4)	(9.5)	(6.3)	(3.4)	(1.9)	(1.2)
	1989	2,783	139	305	717	563	343	282	201	139	61	33
		(100.0)	(5.0)	(11.0)	(25.8)	(20.2)	(12.3)	(10.1)	(7.2)	(5.0)	(2.2)	(1.2)
자	증감	704	6	5	175	203	64	84	69	68	22	8
	(증감률)	(33.9)	(4.5)	(1.7)	(32.3)	(56.4)	(22.9)	(42.4)	(52.3)	(95.8)	(56.4)	(32.0)
여	1984	1,265	224	377	149	122	111	103	83	43	32	21
		(100.0)	(17.7)	(29.8)	(11.8)	(9.6)	(8.8)	(8.1)	(6.6)	(3.4)	(2.5)	(1.7)
	1989	2,061	178	457	301	305	227	198	150	114	61	70
		(100.0)	(8.6)	(22.2)	(14.6)	(14.8)	(11.0)	(9.6)	(7.3)	(5.5)	(3.0)	(3.4)
자	증감	796	-46	80	152	183	116	95	67	71	29	49
	(증감률)	(62.9)	(-20.5)	(21.2)	(102.0)	(150.0)	(104.5)	(92.2)	(80.7)	(165.1)	(90.6)	(233.3)
여성의 비율												
	1984	26.1	70.7	49.5	14.6	14.1	19.5	21.5	23.6	17.0	26.2	20.4
	1989	42.5	56.2	60.0	29.6	35.1	39.8	41.3	42.7	45.1	50.0	68.0
	증감률	16.4	-14.5	10.5	14.9	21.1	20.4	19.8	19.1	28.1	23.8	47.6

<표 Ⅳ-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단위: 천명, %)

		총 수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이상
전	1984	7,007	207	821	1,198	1,046	1,032	908	782	502	295	216
		(100.0)	(3.0)	(11.7)	(17.1)	(14.9)	(14.7)	(13.0)	(11.2)	(7.2)	(4.2)	(3.1)
	1989	9,164	265	922	1,400	1,579	1,234	1,183	1,004	769	467	341
		(100.0)	(2.9)	(10.1)	(15.3)	(17.2)	(13.5)	(12.9)	(11.0)	(8.4)	(5.1)	(3.7)
체	증감	2,157	58	101	202	533	202	275	222	267	172	125
	(증감률)	(30.8)	(28.0)	(12.3)	(16.9)	(51.0)	(19.6)	(30.3)	(28.4)	(53.2)	(58.3)	(57.9)
남	1984	4,412	82	298	815	731	691	605	527	333	194	136
		(100.0)	(1.9)	(6.8)	(18.5)	(16.6)	(15.7)	(13.7)	(11.9)	(7.5)	(4.4)	(3.1)
	1989	5,652	87	284	908	1,106	813	775	653	509	314	203
		(100.0)	(1.5)	(5.0)	(16.1)	(19.6)	(14.4)	(13.7)	(11.6)	(9.0)	(5.6)	(3.6)
자	증감	1,240	5	-14	93	375	122	170	126	176	120	67
	(증감률)	(28.1)	(6.1)	(-4.7)	(11.4)	(51.3)	(17.7)	(28.1)	(23.9)	(52.9)	(61.9)	(49.3)
여	1984	2,595	125	523	383	315	341	303	255	169	101	80
		(100.0)	(4.8)	(20.2)	(14.8)	(12.1)	(13.1)	(11.7)	(9.8)	(6.5)	(3.9)	(3.1)
	1989	3,512	178	638	492	473	421	408	351	260	153	138
		(100.0)	(5.1)	(18.2)	(14.0)	(13.5)	(12.0)	(11.6)	(10.0)	(7.4)	(4.4)	(3.9)
자	증감	917	53	115	109	158	80	105	96	91	52	58
	(증감률)	(35.3)	(42.4)	(22.0)	(28.5)	(50.2)	(23.5)	(34.7)	(37.6)	(53.8)	(51.5)	(72.5)
여성의 비율												
	1984	28.3	47.2	56.7	27.4	19.9	27.6	25.6	25.4	22.0	21.6	23.5
	1989	38.3	67.2	69.2	35.1	30.0	34.1	34.5	35.0	33.8	32.8	40.5
증감률		10.0	20.0	12.5	7.8	10.0	6.5	8.9	9.6	11.8	11.1	17.0

50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여성의 증가속도가 훨씬 빨라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50세 미만의 이농인구에서 여자의 경우가 남자보다 농촌을 떠나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 농림어업부문의 취업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하락하여 전반적으로는 1984년의 48.5%에서 45.1%로 하락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나. 제조업

제조업에서의 취업구조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자. 제조업 전체로는 1984년에서 1989년 사이에 150만명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전체취업자 증가 313만여 명의 50%에 가까운 비율로서 제조업의 급속한 성장을 반영한다.
제조업 취업인구의 증가는 15～19세의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이루어 졌는데, 15～19세 연령층의 취업자는 남녀전체로는 40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남녀를 구분해 보면 남자는 6천명이 증가하였고 여자는 46천명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연령층의 남자의 전체취업자가 41천명이 감소하였고 특히 농림어업부문에서 50천명이 감소하였던 것을 볼 때 제조업에서의 증가는 비록 이들 연령층의 인구규모가 작아졌지만 농림어업부문으로부터 제조업으로 많은 유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농림어업부문에서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급속한 감소를 보였다. 남자의 경우 농림어업부문의 인구가 1984년의 72천명에서 22천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자의 경우는 13천명에서 5천명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에서

이같은 사실을 유추하여 알 수 있는데, 즉 여자의 경우 15～19세는 농림어업부문에서 이직할 인구는 이미 거의가 빠져나왔고 또한 새로운 이농인구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산업 -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 으로 이동해 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4세의 경우의 남자도 15～19세의 남자와 비슷한 해석을 할 수 있어 같은 연령층의 민간인구 규모의 감소로 인한 취업자의 감소를 농림어업으로부터의 이농인구로 보충되어 5천명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여자의 경우는 농립어업으로부터의 유입과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80천명의 취업자 증가가 이루어졌다.
25세 이상의 남자취업자는 대략 같은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가 이루어져서 큰 구조상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단지 30～34세 인구규모가 커짐으로써 이들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4년의 17.3%에서 1989년에는 20.2%로 증가한 것을 지적할 수 있고, 하지만 여전히 25～29세가 25.8%로서 남자 제조업 취업자의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25～29세 사이의 젊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5세 이상의 여성의 제조업 취업인구는 큰 비율로 증가하였는데, 여성의 제조업 취업인구가 796천명 증가한 가운데서 762천명이 25세 이상을 점유하였다. 그 결과 1984년에는 25세 이상이 52.5%를 차지하였는데 1989년에는 69.2%로 대폭 늘어났다.
제조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5～19세에서는 1984년의 70.7%에서 1989년에는 56.2%로 하락하였으나,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모두 상승하였다. 특히 20～24세에서는 60.0%가 여성이며, 대부분 14～26%를 전후한 여성의 비율이 1989년에는 30～50%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전체를 통해서 볼 때 1984년에는 성별분포에서 26.1%를 점유하였던 여성의 비중이 1989년에는 16.4%포인트가 증가함으로써 42.5%로 급상승하였다.

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남자의 경우 20～2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증가가 이루어졌다. 20～24세의 감소는 경활인구의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져, 전체적으로는 연령별 인구의 증가와 거의 비슷하게 늘어났다.
건설업부문에서는 남자의 경우 29세 이하는 감소하였고 반면에 30세 이상 인구는 모두 증가하였다. 하지만 여자는 모든 연령에 걸쳐서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의 진출은 훨씬 많아서 전반적으로 여성의 비율은 1984년의 28.3%에서 1989년에는 38.3%로 늘어났으며, 특히 15～24세에서는 70%를 조금 밑도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연령층에서도 최하 30%를 차지하고 있어 평균 20%를 전후했던 1984년에 비하여 여성의 존재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표 Ⅳ-8> 임금

(단위: 원)

	전산업	광공업	광 업	제조업	전기[1]	건설업	도소매[2]	운수[3]	금융[4]	서비스[5]
1984	296,991.9	249,861.9	296,742.8	245,401.7	498,090.0	380,536.8	339,916.0	319,680.3	479,396.6	452,559.1
	(121.0)	(101.8)	(120.9)	(100.0)	(203.0)	(155.1)	(138.5)	(130.3)	(195.4)	(184.4)
1985	324,424.9	275,261.3	321,851.7	269,839.8	574,750.8	401,040.9	372,065.8	342,329.2	519,390.2	494,339.7
	(120.2)	(102.0)	(119.3)	(100.0)	(213.0)	(148.6)	(137.9)	(126.9)	(192.5)	(179.5)
1986	350,715.8	300,139.8	355,460.8	294,200.6	640,141.7	415,910.3	401,706.1	373,126.9	551,338.3	523,458.9
	(119.2)	(102.0)	(120.8)	(100.0)	(217.6)	(141.4)	(136.5)	(126.8)	(187.4)	(177.9)
1987	386,282.7	334,078.6	384,608.3	328,386.0	698,833.6	453,947.0	446,429.6	410,350.6	612,450.6	557,286.2
	(117.6)	(101.7)	(117.2)	(100.0)	(212.8)	(138.2)	(135.9)	(125.0)	(186.5)	(169.7)
1988	446,535.8	398,776.7	447,472.1	393,422.5	747,176.3	503,912.2	480,651.3	460,777.3	661,005.8	611,412.8
	(113.5)	(101.4)	(113.7)	(100.0)	(189.9)	(128.1)	(122.2)	(117.1)	(168.0)	(155.4)
1989	540,305.5	497,505.5	531,267.9	492,687.4	814,793.5	592,677.8	559,023.0	522,114.4	736,400.3	715,213.1
	(109.7)	(101.0)	(107.8)	(100.0)	(165.4)	(120.3)	(113.5)	(106.0)	(149.5)	(145.2)

주: 1) 제조업=100
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 운수·창고 및 통신업
4)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라. 산업부문간 임금격차

산업별 취업자에 대한 분석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산업부문간 임금의 격차이다. <표 Ⅳ-8>에 1984년부터 1989년까지의 산업부문별 임금과 그 변화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광공업부문, 특히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평균임금이 제조업보다 모두 높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1984년의 전산업의 평균임금은 121.0이었고, 나머지 산업에서 제일 높은 부문은 203.0으로 거의 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산업부문간의 그 격차는 최근에 올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1989년의 전산업 평균임금은 109.7로서 1984년에 비하여 무척 낮은 수준이며, 가장 높은 165.4와도 1984년의 격차에 비하면 아주 작아진 셈이다. 하지만 나머지 산업부문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만일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대변되는 노동수요의 증가가 있으면 제조업으로부터 다른 산업, 특히 서비스산업부문으로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마. 여성화의 진전

또한 주목할만한 사실은 각 산업부문에 있어서 여성고용비중의 증가이다. <표 Ⅳ-3>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취업비중은 1984년의 31.5%에서 1989년에는 9.2%포인트가 증가한 40.7%이다. 이것은 15～19세의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의 비중이 증가한 결과이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30～34세의 연령층과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여성화의 진전이 더욱 빠르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여성의 비중을 산업별로 구분하면 농림어업에서는 1984년의 48.5%에서 1989년에는 45.1%로 낮아졌지만, 제조업부문에서는 26.1%에서 42.5%로 신장되어 무려 16.4%포인트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는 28.3%에서 38.3%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농림어업에서 가장 높으며 광공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순으로 점차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84년에서 1989년까지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와 같은 순서는 곧 바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을 구미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자. <표 Ⅳ-9>에서는 여성의 취업비중이 각 나라의 산업별로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여성의 취업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 나라 여성의 취업비중도 다른 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표 Ⅳ-9>에 나타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3차산업에서의 여성의 취업비중이 제2차산업에서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면에 우리 나라에서는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에서의 비중이 농림어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 있다.

3. 職業別 就業構造의 變化

산업구조의 변동은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를 야기함과 동시에 직업별 취업구조의 변화도 유발시킨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체 직종의 구분은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수산직, 생산직의 7개 분야로 나뉜다. 이와 같은 직업별 취업구조는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산업별 취업구조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 생산과정 및 생산기술 등의 제요소를 지적할 수 있고, 공급측면에서는 직종에 대한 근로자의 선호도, 직업별 임금격차,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제요인을 꼽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노동시장의 제반조건은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동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산업별 취업구조는 직업별 취업구조의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업별 취업구조는 기술혁신, 새로운 생산판매체제, 경영관리체제에 의하여 초래되는 각 산업내에서의 직업구조 변화효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동시에 국제적인 경향이기도 한 것으로 <표 Ⅳ-10>은 1970년, 1980년, 1980년 후반의 일본과 서독의 직종별 고용구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전문・기술직 외에도 판매직, 사무직, 서비스직 등 단순기능직종의 경제활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컴퓨터 보급에 따른 사무자동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사무직, 판매직의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제조업부문의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업인구와 단순기능인력이 서비스부문으로 유입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볼

<표 Ⅳ-9> 여성의 취업비중의 국제비교

(단위: %)

	1960	1973	1981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미 국	33.3	38.5	42.3	18.9	26.6	50.7
프랑스	35.2	36.0	39.3	-1)	-	-
서 독	37.8	37.2	38.5	42.3	27.1	47.1
영 국	34.4	37.6	39.1	15.1	24.4	48.7
일 본	40.7	38.5	38.7	47.6	31.5	41.5

주1: 未發表.

<표 Ⅳ-10> 일본과 서독의 직업별 취업구조 추이

(단위: %)

	일본			서독		
	1970	1980	1987	1970	1980	198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문기술직	6.7	9.0	10.0	9.8	13.4	14.1
관 리 직	3.8	4.7	3.7	2.2	2.9	2.8
사 무 직	14.6	17.2	16.9	17.5	19.4	17.8
판 매 직	11.5	13.8	14.9	8.9	8.4	8.1
서 비 스직	8.0	8.2	8.5	9.5	10.7	10.4
농림어업직	18.9	10.5	8.0	7.6	5.3	4.4
생산운수직	35.1	34.0	34.7	36.1	35.7	30.8
미 분 류	1.4	2.6	3.3	8.4	4.2	11.6

자료: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총年號.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70년대 이후에는 60년대에 비하여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크게 둔화되었다는 점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고용에 있어서는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로 계속 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對個人서비스를 제외하고 보면 對企業서비스의 고용비중 증가와 금융·보험업등의 고용비중 둔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대기업서비스의 고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무자동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이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Ⅳ-11> 일본의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용증가 추이

(단위: 1986고용인원/1975고용인원)

도소매업	1.19	對企業서비스	1.87
금융보험업	1.19	(정보조사광고)	2.77
(은행신탁)	0.98	(전문서비스)	1.90
(보험)	1.20	對個人서비스	1.39
부동산업	1.52	공공서비스	1.42
운수통신업	1.08	(의료보장)	1.57
전기가스수도업	1.05	(교육·연구기관)	1.23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70년대 이후 전자·통신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은 산업별 고용구조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제조업의 고용감소이상으로 서비스부문의 고용증가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적어도 지금까지 전자·통신기술의 생산공정 및 사무의 자동화효과가 제품혁신 내지는 새로운 산업 창출효과보다 컸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프리만(freeman)과 킴벌(Kimball) 등은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 부진했던 이유로서 세계경제질서의 혼돈에 따른 수요부진과 신기술의 산업적용에 수반된 투자위험 및 조정비용 때문에 전자·통신기술의 산업적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1].
따라서 프리만과 킴벌은 신기술의 산업적용에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전문기능인력의 부족과 기업부문 특히 중소기업부문의 기존 기술에 집착하는 경영관행이 시정된다면 가까운 시일내에 전반적으로 산업생산성이 향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산업의 창출에 따른 고용증대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는 데 반해 레온티에프(W. Leontief)와 같은 학자들은 새로운 산업의 창출보다는 자동화에 따른 노동대체효과를 중시하여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고용감소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레온티에프와 더친(Dutchin)은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생산공정의 혁신이 고용에 주는 효과를 模擬分析(simulation)해 본 결과 자동화기술을 이용하는 경우가 기존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생산이 6.6% 더 늘어나는 반면 고용은 11.7%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직업구성에 있어서도 컴퓨터종사자, 엔지니어 등 전문직과 서비스직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대신 경영직과 사무직의 비중은 계속 저하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經濟企劃廳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용구조변화 분석을 통해 2000년에 가서는 광공업의 고용비중이 25%에서 18%로 하락하는 대신 제3차산업의 고용비중은 정보통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55%에서 65%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였다.
198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우리 나라의 직업별 구조는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알아보자. <표 Ⅳ-12>에서 <표 Ⅳ-16>에 1984년과 1989년의 직업별 변화추이가 나타나 있다. 1984년과 1989년의 가간의 가장 현격한 변화를 보였던 직종은 생산・운수직과 농림・수산직으로 생산・운수직은 그 비중이 크게 신장한 데 반하여 농림・수산직은 대폭 축소되었다. 이것은 순전히 산업구조, 특히 산업간 취업구조 비중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산업별 취업구조에서 제조업이 같은 기간동안에 23.2%에서 27.6%로 증가한 것에 힘입어 생산・운수직의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취업자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생산・운수직의 증가는 당연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생산・운수직은 30.0%에서 34.5%로 그 비중이 증가하였고 절대수에서도 1,724천명이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증가 3.104천명의 55.5%를 차지하였다. 마찬가지로 농림・어업의 취업비중이 27.1%에서 19.5%로 감소하였고, 특히 농림・수산직의 거의 대부분이 이 산업부문에 취업하므로 농림・수산직의 직종별 취업자도 26.8%에서 19.3%로 감소한 것이다. 전문기술직과 사무관련직, 그리고 서비스직도 생산기술 및 관리기술 방식의 변화・진전을 포함하는 산업구조의 변동을 반영하여 증가하였다. 특히 전문기술직은 1984년에 비하여 57.9%가 증가하여 그 비중은 5.3%에서 6.9%로 1.6%포인트 증

<표 Ⅳ-12> 전산업

(단위: 천명, %)

		총 수	전문기술	행정관리	사무관련	판매종사	서비스직	농림수산	생산운수
전	1984	14,412	763	208	1,638	2,122	1,492	3,867	4,322
		(100.0)	(5.3)	(1.4)	(11.4)	(14.7)	(10.4)	(26.8)	(30.0)
	1989	17,516	1,205	247	2,181	2,565	1,884	3,388	6,046
		(100.0)	(6.9)	(1.4)	(12.5)	(14.6)	(10.8)	(19.3)	(34.5)
체	증감	3,104	442	39	543	443	392	-479	1,724
	(증감률)	(21.5)	(57.9)	(18.8)	(33.2)	(20.9)	(26.3)	(-12.4)	(39.9)
남	1984	8,872	505	203	1,088	1,129	587	2,204	3,156
		(100.0)	(5.7)	(2.3)	(12.3)	(12.7)	(6.6)	(24.8)	(35.6)
	1989	10,389	717	236	1,332	1,354	729	1,852	4,169
		(100.0)	(6.9)	(2.3)	(12.8)	(13.0)	(7.0)	(17.8)	(40.1)
자	증감	1,517	212	33	244	225	142	-352	1,013
	(증감률)	(17.1)	(42.0)	(16.3)	(22.4)	(19.9)	(24.2)	(-16.0)	(32.1)
여	1984	5,540	258	5	550	993	905	1,663	1,166
		(100.0)	(4.7)	(0.1)	(9.9)	(17.9)	(16.3)	(30.0)	(21.0)
	1989	7,127	488	11	849	1,211	1,155	1,536	1,877
		(100.0)	(6.8)	(0.2)	(11.9)	(17.0)	(16.2)	(21.6)	(26.3)
자	증감	1,587	230	6	299	218	250	-127	711
	(증감률)	(28.6)	(89.1)	(120.0)	(54.4)	(22.0)	(27.6)	(-7.6)	(61.0)
여성의 비율									
	1984	31.6	21.4	2.0	25.2	38.7	48.0	49.1	19.3
	1989	40.7	40.5	4.5	38.9	47.2	61.3	45.3	31.0
증감률		9.1	19.1	2.4	13.7	8.5	13.3	-3.7	11.8

<표 Ⅳ-13> 농림수산업

(단위: 천명, %)

		총 수	전문기술	행정관리	사무관련	판매종사	서비스직	농림수산	생산운수
전체	1984	3,908	5	4	9	0	3	3,862	25
		(100.0)	(0.1)	(0.1)	(0.2)	(0.0)	(0.1)	(98.8)	(0.6)
	1989	3,422	9	4	9	1	4	3,378	17
		(100.0)	(0.3)	(0.1)	(0.3)	(0.0)	(0.1)	(98.7)	(0.5)
	증감	-486	4	0	0	1	1	-484	-8
	(증감률)	(-12.4)	(80.0)	(0.0)	(0.0)	(100.0)	(33.3)	(-12.5)	(-32.0)
남자	1984	2,239	5	4	8	0	2	2,200	20
		(100.0)	(0.2)	(0.2)	(0.4)	(0.0)	(0.1)	(98.3)	(0.9)
	1989	1,877	9	4	6	1	1	1,843	13
		(100.0)	(0.5)	(0.2)	(0.3)	(0.1)	(0.1)	(98.2)	(0.7)
	증감	-362	4	0	-2	1	-1	-357	-7
	(증감률)	(-16.2)	(80.0)	(0.0)	(-25.0)	(100.0)	(-50.0)	(-16.2)	(-35.0)
여자	1984	1,669	0	0	1	0	1	1,662	5
		(100.0)	(0.0)	(0.0)	(0.1)	(0.0)	(0.1)	(99.6)	(0.3)
	1989	1,545	0	0	3	0	3	1,535	4
		(100.0)	(0.0)	(0.0)	(0.2)	(0.0)	(0.2)	(99.4)	(0.3)
	증감	-124	0	0	2	0	2	-127	-1
	(증감률)	(-7.4)	(0.0)	(0.0)	(200.0)	(0.0)	(200.0)	(-7.6)	(20.0)
여성의 비율									
	1984	48.8	0.0	0.0	11.1	0.1	25.0	49.2	29.4
	1989	45.1	0.0	0.0	33.3	0.0	75.0	45.4	23.5
	증감률	-3.6	0.0	0.0	22.2	0.0	50.0	-3.8	-5.9

<표 Ⅳ-14> 광공업

(단위: 천명, %)

		총 수	전문기술	행정관리	사무관련	판매종사	서비스직	농림수산	생산운수
전	1984	3,492	69	103	488	38	59	1	2,734
		(100.0)	(2.0)	(2.9)	(14.0)	(1.1)	(1.7)	(0.0)	(78.3)
	1989	4,933	102	119	633	68	102	1	3,908
		(100.0)	(2.1)	(2.4)	(12.8)	(1.4)	(2.1)	(0.0)	(79.2)
체	증감	1,441	33	16	145	30	43	0	1,174
	(증감률)	(41.3)	(47.8)	(15.5)	(29.7)	(78.9)	(72.9)	(0.0)	(42.9)
남	1984	2,219	63	100	341	31	38	1	1,645
		(100.0)	(2.8)	(4.5)	(15.4)	(1.4)	(1.7)	(0.0)	(74.1)
	1989	2,865	82	116	408	54	49	1	2,155
		(100.0)	(2.9)	(4.0)	(14.2)	(1.9)	(1.7)	(0.0)	(75.2)
자	증감	646	19	16	67	23	11	0	510
	(증감률)	(29.1)	(30.2)	(16.0)	(19.6)	(74.2)	(28.9)	(0.0)	(31.0)
녀	1984	1,273	6	3	147	7	21	0	1,089
		(100.0)	(0.5)	(0.2)	(11.5)	(0.5)	(1.6)	(0.0)	(85.5)
	1989	2,068	20	3	225	14	53	0	1,753
		(100.0)	(1.0)	(0.1)	(10.9)	(0.7)	(2.6)	(0.0)	(84.8)
자	증감	795	14	0	78	7	32	0	664
	(증감률)	(62.5)	(233.3)	(0.0)	(53.1)	(100.0)	(152.4)	(0.0)	(61.0)
성의 비율									
	1984	25.8	5.9	2.5	23.2	10.3	20.6	0.0	27.9
	1989	41.9	19.6	2.5	35.5	20.6	52.0	0.0	44.9
	증감률	16.1	13.7	0.0	12.3	10.3	31.4	0.0	17.0

<표 Ⅳ-15> 제조업

(단위: 천명, %)

		총 수	전문기술	행정관리	사무관련	판매종사	서비스직	농림수산	생산운수
전	1984	3,351	65	101	480	38	58	1	2,608
		(100.0)	(1.9)	(3.0)	(14.3)	(1.1)	(1.7)	(0.0)	(77.8)
	1989	4,841	101	116	627	68	98	1	3,830
		(100.0)	(2.1)	(2.4)	(13.0)	(1.4)	(2.0)	(0.0)	(79.1)
체	증감	1,490	36	15	147	30	40	0	1,222
	(증감률)	(44.5)	(55.4)	(14.9)	(30.6)	(78.9)	(69.0)	(0.0)	(46.9)
남	1984	2,081	59	98	333	31	37	1	1,522
		(100.0)	(2.8)	(4.7)	(16.0)	(1.5)	(1.8)	(0.0)	(73.1)
	1989	2,782	81	113	404	54	47	1	2,082
		(100.0)	(2.9)	(4.1)	(14.5)	(1.9)	(1.7)	(0.0)	(74.8)
자	증감	701	22	15	71	23	10	0	560
	(증감률)	(33.7)	(37.3)	(15.3)	(21.3)	(74.2)	(27.0)	(0.0)	(36.8)
여	1984	1,270	6	3	147	7	21	0	1,086
		(100.0)	(0.5)	(0.2)	(11.6)	(0.6)	(1.7)	(0.0)	(85.5)
	1989	2,059	20	3	223	14	51	0	1,748
		(100.0)	(1.0)	(0.1)	(10.8)	(0.7)	(2.5)	(0.0)	(84.9)
자	증감	789	14	0	76	7	30	0	662
	(증감률)	(62.1)	(233.3)	(0.0)	(51.7)	(100.0)	(142.9)	(0.0)	(61.0)
여성의 비율									
	1984	26.2	5.9	2.6	23.4	10.3	21.4	0.0	28.4
	1989	42.5	19.8	2.6	35.6	20.6	52.0	0.0	45.6
	증감률	16.3	13.9	0.0	12.1	10.3	30.6	0.0	17.3

<표 Ⅳ-1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단위: 천명, %)

		총 수	전문기술	행정관리	사무관련	판매종사	서비스직	농림수산	생산운수
전	1984	7,012	689	101	1,141	2,084	1,430	4	1,563
		(100.0)	(9.8)	(1.4)	(16.3)	(29.7)	(20.4)	(0.1)	(22.3)
	1989	9,161	1,094	124	1,539	2,496	1,778	9	2,121
		(100.0)	(11.9)	(1.4)	(16.8)	(27.2)	(19.4)	(0.1)	(23.2)
체	증감	2,149	405	23	398	412	348	5	558
	(증감률)	(30.6)	(58.8)	(22.8)	(34.9)	(19.8)	(24.3)	(125.0)	(35.7)
남	1984	4,414	437	99	739	1,098	547	3	1,491
		(100.0)	(9.9)	(2.2)	(16.7)	(24.9)	(12.4)	(0.1)	(33.8)
	1989	5,647	626	116	918	1,299	679	8	2,001
		(100.0)	(11.1)	(2.1)	(16.3)	(23.0)	(12.0)	(0.1)	(35.4)
지	증감	1,233	189	17	179	201	132	5	510
	(증감률)	(27.9)	(43.2)	(17.2)	(24.2)	(18.3)	(24.1)	(166.7)	(34.2)
여	1984	2,598	252	2	402	986	883	1	72
		(100.0)	(9.7)	(0.1)	(15.5)	(38.0)	(34.0)	(0.0)	(2.8)
	1989	3,514	468	8	621	1,197	1,099	1	120
		(100.0)	(13.3)	(0.2)	(17.7)	(34.1)	(31.3)	(0.0)	(3.4)
지	증감	916	216	6	219	211	216	0	48
	(증감률)	(35.3)	(85.7)	(300.0)	(54.5)	(21.4)	(24.5)	(0.0)	(66.7)
여성의 비율									
	1984	28.4	23.0	1.6	26.1	39.5	49.7	11.1	3.4
	1989	38.4	42.8	6.5	40.4	48.0	61.8	11.1	5.7
	증감률	10.0	19.7	4.8	14.2	8.5	12.1	0.0	2.3

가하여 생산시설의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반 전문직의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사무관련직이 33.2%의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11.4%에서 12.5%로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증가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특히 여성의 증가가 현저한 것을 알 수 있다.
생산・운수직에서는 남자가 32.1%의 증가율을 보인 데 비하여 여자는 61.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전문기술직과 사무관련직에도 1984년과 1989년 사이에 남자는 각각 42.0%,
22.4%의 증가율을 보인 데 반하여 여자는 89,1%와 54,4%의 증가율을 각각 기록하였다. 이로써
생산・운수직의 여성의 비율은 19.3%에서 11.8%포인트 증가한 31.0%가 되었고,
전문기술직에서는 21.4%에서 거의 배가 증가한 40.5%로, 사무관련직에서 25.2%에서 38.9%로
늘어났다.

<사무직 비율의 증가>
앞에서 보았듯이 생산직근로자의 증가에 못지않게 사무직근로자의 증가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커다른 흐름에서 볼 때는 생산직근로자의 증가율은 70년대 초기와 중반에 비하여
80년대 초기와 중반에는 뚜렷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현장 종사자들은 앞으로
기업의 압력에 대한 흡수대책으로 공장의 자동화를 촉진하거나 시설을 개선할 때에는 인력배치의
전환 또는 이를 위한 재훈련의 과제가 제기될 것이다.
사무직근로자의 비중의 증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표 Ⅳ-17>이다. 이 표는 광공업에 속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5인 이상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생산직과 사무직의 비율의 변화추이를 산업중분류로 구분하여 시계열 자료를 작성한 것이다. 제조업의 소프트화의 추세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제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를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직과 생산과정에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사무직으로 구분한 것이다. 제조업 전체로 볼 때 1970년에 사무직의 비율이 13.8%이던 것이 1980년에는 17.0%, 1987년에는 20.1%로 현격한 증가를 이룬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중분류로 나누어 본 대부분의 산업에서도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제조업전반에 걸친 소프트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촉진이 倍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고도의 전문기술인력의 증가는 필연적이고 또한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무직의 증가는 일반관리직과 함께 생산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표 Ⅳ-17>

연도	E2	E21	E23	E29	E3	E31	E32	E33	E34	E35	E36	E37	E38	E39
1970	12.2	11.3	16.5	10.6	13.8	17.6	8.5	10.1	22.2	21.0	15.0	17.6	14.3	8.1
1971	17.5	18.4	22.5	11.6	13.5	17.4	8.1	11.1	22.3	20.0	17.6	17.4	13.6	9.1
1972	16.7	18.6	16.2	10.3	13.5	15.9	8.2	12.0	24.1	21.9	17.2	16.2	14.1	7.6
1973	13.5	13.7	16.0	10.8	13.6	17.9	9.0	12.5	25.3	20.2	15.8	14.7	12.9	7.8
1974	16.4	20.3	21.0	9.1	14.5	21.2	9.1	12.9	23.7	20.0	15.0	16.0	15.2	8.5
1975	17.1	17.6	18.9	13.5	14.6	22.8	9.0	14.0	22.5	20.0	16.5	18.5	15.4	9.1
1976	21.8	24.3	21.8	12.0	15.0	22.6	9.6	13.3	23.2	21.5	16.6	16.8	16.1	10.2
1977	19.1	19.6	20.2	16.3	15.3	23.9	10.6	12.9	23.9	20.0	15.4	17.3	15.9	10.7
1978	17.8	16.3	26.4	18.6	16.3	24.5	11.5	13.9	24.9	20.1	16.9	18.0	17.4	11.7
1979	18.7	18.9	21.2	16.4	17.0	26.2	10.6	15.8	26.7	20.4	16.8	20.0	18.6	12.6
1980	20.5	21.0	21.3	17.5	17.9	27.1	11.2	16.9	25.8	21.2	18.3	18.2	20.7	13.1
1981	15.1	14.5	18.2	16.4	17.2	25.0	10.6	16.4	26.8	20.7	17.0	17.8	20.2	13.5
1982	16.2	15.8	19.9	16.1	18.0	27.7	11.2	16.0	27.0	21.1	17.0	18.0	21.1	14.1
1983	16.5	16.7	17.1	15.1	18.6	27.6	11.5	15.9	27.2	21.4	18.8	21.9	21.5	14.0
1984	13.9	12.9	18.3	17.0	19.0	27.1	12.1	17.6	29.9	21.7	18.4	21.4	21.6	13.3
1985	15.7	15.2	17.3	17.7	19.6	26.9	12.3	16.3	31.2	21.3	20.4	20.8	22.9	13.4
1986	16.0	15.9	15.3	18.1	19.6	27.1	12.4	16.4	30.6	21.9	20.2	20.6	22.3	13.8
1987	14.8	14.0	14.6	19.1	20.1	28.7	13.4	16.5	32.1	21.3	20.2	20.5	22.3	15.0

주: 사무직/(생산직+사무직)×100
E2 : 광업
E21 : 석탄광업
E23 : 금속광업
E29 : 기타광업
E3 : 제조업
E31 :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E32 :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E33 :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포함
E34 :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E35 :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
E36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제외
E37 : 제1차 금속산업
E38 :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E39 : 기타제조업

만큼 기업의 사무・관리능률 향상대책도 사무자동화(OA)기기의 보급과 함께 서둘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주석 1) 킴벌은 현재 전자・통신기술의 산업에 대한 활용도는 10～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4. 被傭者의 增大와 自營業者・家族從事者의 減少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영업주와 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비임금근로자는 감소하고 대신에 피고용자인 임금근로자는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통적인 가내수공업에서 공장제 생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필연적인 변천이기도 하며, 또한 생산이 규모의 경제성을 따라서 생산규모가 대형화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는 1984년에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52.9%였으나, 1989년에는 다소 증가하여 59.1%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도 구미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비율로서,[1] 고용자층에 편입한 세월이 짧고 또한 임금근로자로서의 경험과 의식이 미성숙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노사관계를 비롯한 여러 부수적인 문제가 이제야 비로소 다루어지고 또한 새로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하겠다.
임금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속에서도 특히 常時雇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곧 고용의 안정화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1984년에는 전체 취업자의 33.5%로서 4,824천명이 상시고(常傭雇와 臨時雇를 포함)에 속하였는데 1989년에는 무려 3,814천명이 증가한 49.3%로서 전체 취업자 17,518천명의 반수에 가까운 8,638천명의 취업자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日雇로 고용된 근로자는 1984년의 2,792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9.4%의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1989년에는 1,073천명이 감소한 1,719천명으로서 9.8%를 점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1984년과 1989년의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단순히 보면 6,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볼수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상시고와 임시고의 비율이 1.7배에서 5.0배로 증가한 것으로, 고용안정면에서 엄청난 진보를 보인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가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雇傭主는 다소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의 중에서 볼 때 1984년의 5.5%에서 1989년에는 6.2%로 늘어났다. 자영업자의 증가율은 매우 낮아서 그 비중은 26.2%에서 22.7%로 하락하였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는 그 절대수가 107천명이 감소하여 취업자의 비중도 15.4%에서 12.0%로 낮아졌는데, 이것은 다분히 농임어업부문의 취업자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석 1) 다음의 표는 구미 각국의 임금근로자의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단위 : %)

	1960	1973	1980
미 국	83.9	90.3	90.6
일본	53.4	68.7	71.7
프랑스	69.5	80.7	82.9
서독	69.5	84.2	86.2
영 국	92.7	92.1	89.8

Ⅴ.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198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나라의 인력시장에서 발생한 제반 변화를 산업구조의 변동과 관련하여서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는 노동시장에서 수요구조 및 공급구조의 변동과 생산구조의 변동에 따른 노동력수급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어지는 단계에 있다. 우리 나라 경제는 기술산업에로의 산업구조 개편이 가속화됨으로써 전문기술인력 중심의 인력양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노동력의 고령화, 고학력화, 증대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 등의 인력공급 구조의 변화는 실업문제 및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력수급상의 환경변화는 산업구조조정 및 인력정책상의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으며 ① 기술인력의 형성, ② 직업안정망의 확충, 인력유동계획, 실업자대책 등 인력활용프로그램의 적극 추진 ③ 적정기구의 확보 ④ 인력개발의 질적측면의 강조 ⑤ 인력예측 및 계획기법의 개선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력수급 및 노동시장정책상의 과제를 실현시키는 데는 몇 가지 조건 및 정책상의 배려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노동력공급의 과잉을 대비한 취업 및 고용의 촉진을 위한 산업정책상의 배려이다. 고용확대를 위한 총수요관리정책이 필요하겠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는 경제 전반에 따르는 반작용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의 수립에 있어 그 고용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고용보장을 위한 산업지원 및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하여 고용감소의 완충적 작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즉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집약적 투자증대는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의 확보를 통한 고용확대를 수반하나 단기적으로는 고용감소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단기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집약적 산업의 재편성 관점에 있어 고용효과를 감안하여 산업구조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이제까지 소홀히 다루었던 중소기업과 내수산업 및 농촌부문 그리고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적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으로 고용의 제고를 기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저속성장에 대응한 고용창출정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단기적 고용대책으로서 공공개발정책, 신규고용사업체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근로시간의 단축, 전직훈련을 통한 취업알선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기적 고용창출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업, 근로자, 정부의 공동노력에 의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7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우리의 노동시장이 본격적인 인력수급시장으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지 못하여 노동력 활용의 극대화를 기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고용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취업알선을 위한 직업안정기구의 마련과 그 운용에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이와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여성, 청소년, 고령자, 심신장애자를 위한 특별고용대책이 새로운 차원에서 배려되어야 한다.

넷째, 기술사회에 맞는 고용제도, 고용관행을 확립하는 데 있어 중심적 무대인 민간기업에 있어 자주적인 노사교섭의 확립이 중요하다. 이 경우, 고용제도 관행의 개혁에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의 경영측에 근로조건의 개선,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는 주도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조합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조합의 역할증대화 더불어 실업의 발생, 근로조건의 유지, 성과배분에 있어 노사간의 이해대립이 첨예화하지 않도록 하는 조정 또한 중요하다. 즉 노사간에 있어 ① 사전협의 ② 고용유지 ③ 근로조건의 유지 ④ 교육・훈련에 관한 상호협력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적・행정적 장치의 보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개별경제 주체의 발전을 통한 사회전체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경제자원, 특히 노동력 자원의 유동화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선택, 이른바 직업선택의 전제로서 교육훈련에 있어 선택의 다양화가 보장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가치지향적 생활양식의 보편화, 취업연수의 장기화 경향은 이러한 노동력 유동화체계의 확립을 요청하는 요인들이다.

參考文獻

김유배, 「90년대의 고용인력정책의 방향」, 『한국의 공업화와 노사관계』, 정암사, 1988.

박남건 · 이덕희 · 김현창, 『산업인력의 수급전망과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1990.

박명수, 『중장기 노동력 수급전망』, 한국노동연구원, 1990.

———, 「인력구조 개편」, 『전경련』 별책부록, 전국경제인연합회, 1990. 10.

박세일, 「향후 우리나라 인력 및 노동정책의 과제와 방향」, 『한국의 공업화와 노사관계』, 정암사, 1988.

변형윤, 「한국경제의 성장과 변천」, 『한국경제의 이해』, 비봉출판사, 1987.

조윤형, 「한국의 공업화와 노동시장 · 취업구조의 변화」, 『한국의 공업화와 노사관계』, 정암사, 198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한국은행, 「우리나라 노동연관구조분석」,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88.6.

———, 「산업구조조정과 고용안정」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0.1.

———, 「우리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75-80-85년 접속불변산업연관표에 의한 분석)」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0.4.

森五郎, 「日本의 勞使關係시스템」(차철敎譯), 한국노동연구원, 1990.

Gupta, K.L., Industrialization and Employment in Developing Countries, London: Routledge, 1989.

Hart, R., Employment, Unemployment and Labor Utilization, London: Unwin Hyman Inc., 1988.

ILO, World Labor Report I, ILO, 1984.

Leontief, W. and F. Duchin, The Future Impact of Automation on Work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Levacic, R., Economic Policy-Making, Its Theory and Practice, Wheatsheaf Books, Sussex, 1987.

Robinson, A., Brahmananda, P.R. and L.K. Dehsapande, ed., Employment Policy in a Developing Country, Vol. 1 and 2, Internatioanl Economic Association, 1983.

Williams, B., "Technical Change and Employment," in Technology Innovation and Economic Policy, Peter, H. ed., Phillip Allan Publishers, 1986.